Start-up Trend Report 2023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3

opensurvey

STARTUP ALLIANCE

Contents

Part.1 조사 개요

Part.2 조사 결과 요약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Part.1

조사 개요

조사 설계

조사 명칭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3**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정보기술/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 인식 및 현실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됨**
조사 대상	**1) 창업자 200명** 대상 : 창업자/공동창업자 (리멤버의 창업자 Pool 활용) 연차 : 창업 3년 이내 76명, 4년-5년차 64명, 6년차 이상 60명 **2) 스타트업 재직자 250명** 대상 :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250명** 대상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국내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200명** 대상 :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총 900명**
조사 기간	2023년 9월 05일 ~ 9월 13일

Part.2

조사 결과 요약

스타트업 창업자의 생각

#작년보다 악화된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

#경기불황, 고금리/금리인상으로 더욱 어려워진 투자 유치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필요성 시급

#스타트업의 30%가 해외 시장에 진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는 작년 대비 7.2점 감소한 46.5점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자(76.5%)들은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투자/지원, 민간 부문 지원사업 약화 등에서 시장 상황의 부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2024년에도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창업자 10명 중 6명은 작년 대비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63.0%).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 리스크 대비책으로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흑자 사업 집중, 비용 절감, 정부지원사업 추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 평가는 52.5점으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활성화,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니즈가 높은 가운데, 특히 '규제 완화' 필요성 인식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 공공기관 중에서는 KISED(창업진흥원)이 가장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입니다.

평균적으로 스타트업 중 약 30%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행 중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북미와 동남아시아를 주요 진출지로 선택하며, 그 뒤로는 일본, 유럽, 중국 등의 국가가 따릅니다. 해외 진출 시,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 현지 시장 정보 획득, 유통 및 판로 개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언어 능력과 글로벌 인재 확보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습니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생각

#스타트업 근무 만족도 및 추천의향 감소

#재정적 보상, 조직 비전/전략, 리스크/불안정성, 체계 미흡 아쉬움

#절반 이상이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 체감

42.0%만이 스타트업 생활에 만족하며, 이는 작년 대비 7.2%p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워라밸 보장,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는 만족스러우나, 낮은 재정적 보상,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은 주요한 불만족 요인으로 꼽힙니다.

10명 중 3명이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며, 추천하는 경우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증명된 시리즈 A~B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을 주로 추천합니다.
반면, 추천하지 않는 주요 사유는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성 및 체계 미흡입니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53.6%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나, 지속 근무 및 창업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향후 이직 시 높은 재정적 보상 및 복리/복지 혜택이 좋은 대기업을 가장 선호합니다.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주로 소프트웨어/솔루션, 딥테크 분야를 희망하며, 4명 중 1명은 글로벌/국제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선호합니다.

스타트업 재직자가 빠른 성장세를 체감하고,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기업은 토스, 당근마켓, 배달의민족이 주로 꼽힙니다.

대기업 재직자의 생각

#18.8%만이 1년 내 스타트업 이직 고려

#재정적 보상,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성취감 매력적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 워라밸, 낮은 보상은 허들

#절반 이상이 1년 내 창업 고려

대기업 재직자 4명 중 1명은 평소 포털사이트, 직장인 전용 커뮤니티 앱, 뉴스/기사 등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의 1년 내 스타트업 이직 고려율은 18.8%로, 작년 대비 6.0%p 감소하였습니다. 이직을 고려한 경우, 주로 높은 재정적 보상,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을 기대하며, 금융/핀테크/블록체인, 딥테크, 소프트웨어/솔루션 분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스타트업의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성, 워라밸 비보장, 낮은 재정적 보상 예상으로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상인 52.8%가 최근 1년 내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커머스/유통, 농식품, 교육, 여행/레저 분야 창업 고려 비율이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대기업 재직자는 빠른 성장/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으로 토스, 배달의민족, 당근마켓을 Top3로 응답하였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생각

#채용/기업정보 앱/사이트, 포털사이트, 유튜브 통한 정보 탐색

#스타트업 취업은 최선호는 아니지만, 약 45%가 고려하는 옵션

#창업을 한다면 패션/뷰티, 콘텐츠/미디어, 농식품 업종 고려

취업준비생에게 스타트업은 '젊은/새로운' 이미지이며, 작년 대비 '혁신적/창의적인' 이미지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반수가 스타트업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당근마켓, 배달의민족, 토스는 타 스타트업 대비 빠른 성장 인식 및 관심도가 높은 편입니다.

5명 중 1명은 평소 스타트업 정보를 탐색하며,
주로 채용/기업정보 앱/사이트, 포털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접합니다.

대부분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정부/공기업 취업을 선호하며, 벤처/스타트업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은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44.5%는 최근 1년 내 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스타트업은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 업무 및 커리어 개발 가능, 워라밸 보장,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이 주요 매력 요소입니다.

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고려하는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25.8%는 해외에 진출한 스타트업을 선호하였습니다.

취업준비생의 45.5%가 지난 1년 동안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5%p 감소한 수치입니다.
창업을 고려한 경우, 패션/뷰티, 콘텐츠/미디어, 농식품 업종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특히 패션/뷰티 업종 고려율이 작년 대비 6.9%p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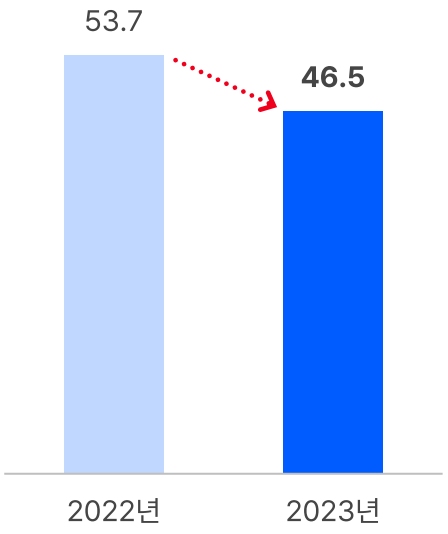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는 46.5점으로, 투자 위축/감소·경기 침체 등 작년보다 악화된 상황 체감 중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는 100점 만점 중 평균 46.5점으로 작년 대비 7.2점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투자 위축/감소·경기 침체·시장 분위기 위축 등의 측면에서 최근 스타트업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부정 평가 이유

투자/시장 상황	**43.5**
• 투자 위축/감소	30.0
• 자금 시장 경색	5.0
스타트업 운영	**33.5**
• 스타트업 파산/폐업	8.0
• 인재확보 어려움	5.0
• 경영악화/적자	4.0
• 인원감축/구조조정	3.0
인식	**19.0**
• 시장 분위기 위축	10.5
•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나쁨	3.0
경제/금리 상황	**15.5**
• 경기 침체	12.5

"투자도 위축되고 스타트업에 고급인력들이 떠나고 있음"

"투자시장 감소 및 소비력 위축으로 인한 신규사업에 대한 관심 저하"

"수익모델 약한 가운데 자금 투자 시장 냉각 엔지니어 임금 부담가중"

"수치 위주의 투자집행에 따른 스타트업들의 초기 투자유치 난항"

"경제 자체가 위축되고 시장이 위축됨에 따른 영업활동 감소"

"이전 으쌰으쌰 하던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 임원 감축 등 분위기가 좋지 않음"

"투자환경이 경색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정부의 출자를 받은 펀드들도 투자 집행에 소극적인 기조임."

[Base: 창업자 (n=200), Unit : %]
*부정 평가 이유 : 3% 미만 응답 절삭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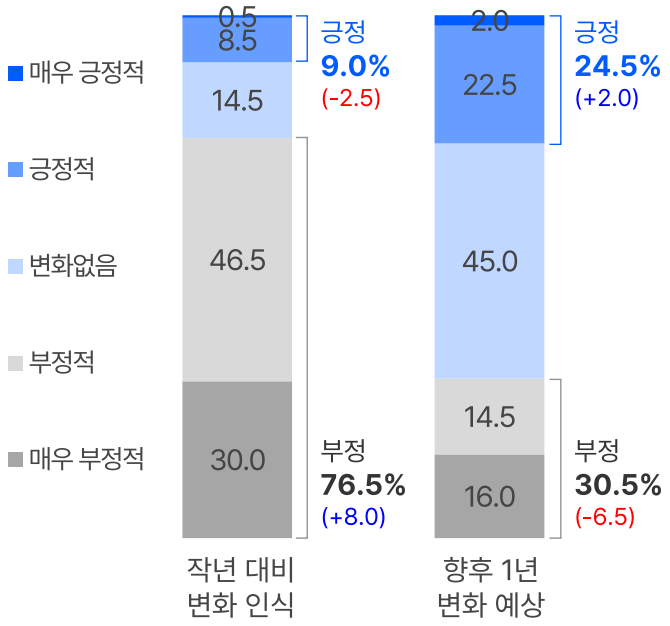
미온적 VC 투자/지원에서 부정적 변화를 감지하며, 경제상황 악화로 향후에도 지금의 상황에 변함이 없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76.5%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부정적이거나 변화가 없다고 느끼며, 미온적인 벤처캐피탈의 투자/지원에서 부정 변화를 가장 많이 체감합니다.

창업자의 약 45.0%는 2024년에도 지금의 분위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30.5%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상 유지/부정 전망 이유로는 '경제위기 가능성/경제 상황 악화'를 가장 많이 꼽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괄호안 수치: 작년(2022년) 대비 증감률

		변화인식		향후 전망	
부정 이유	1위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58.8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31.8
	2위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지원사업 약화	36.3	반등/변화의 기미가 없음	19.9
	3위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34.6	투자 위축	13.9
	4위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34.6	무능한 정부/정책 부재	13.2
	5위	저조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24.7	정부 지원 감소	5.3
긍정 이유	1위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55.6	투자 유치 활성화	34.7
	2위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확산	38.9	경제회복/활성화	26.5
	3위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증가	33.3	정부 지원 확대	12.2

[Base: 창업자 (n=200), Unit : %]

정부 역할 평가

창업자가 평가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은 52.5점,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작년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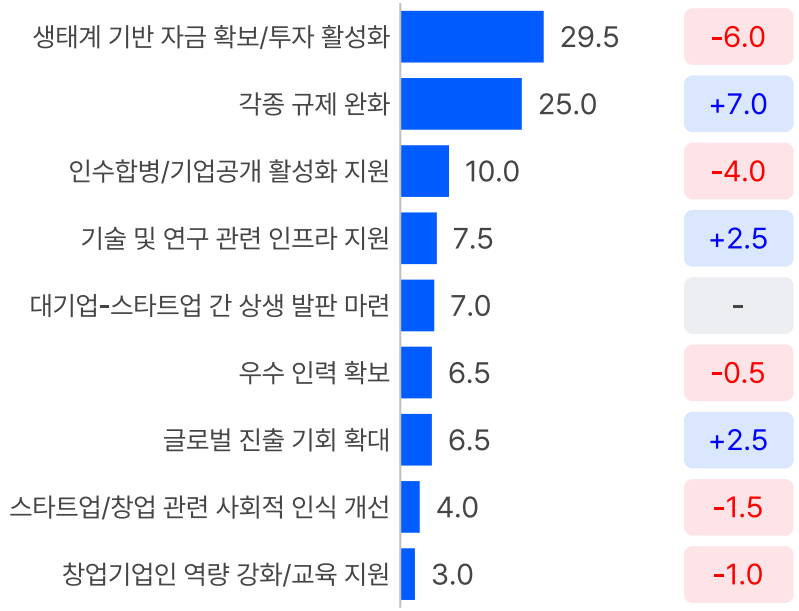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측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52.5점을 주었습니다.

정부 시급 개선점으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각종 규제 완화'가 주로 응답되었으며, 특히, '각종 규제 완화' 요구가 전년 대비 7%p 증가하였습니다.

완화 필요한 정부 규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금융 규제'·'의료법'·'샌드박스 관련 규제' 등 각 분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규제 관련 영역이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정부 시급 개선사항 1순위



정부 규제 완화 선호 분야

• 개인정보보호법	9.9
• 각종 규제완화	9.9
• 금융 규제	7.9
• 의료법 개선	7.9
• 샌드박스 관련 규제	7.9
• 타다 우버 규제	5.0
• 노동/노무 관련 규제	3.0
• 서류간소화	3.0
• 주류 규제 완화	3.0
• 현실적인 정책 운영	3.0
• 투자규제 완화	3.0

[Base: 창업자 (n=200) / 정부 시급 개선 과제로 '규제완화' 선택자 (n=101), Unit : %]

선호/적극적 기관 및 기업

‘프라이머’·‘알토스벤처스’·‘카카오벤처스’·‘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창업자가 꼽은 각 분야 선호 1위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사기업은 ‘네이버’, 공공기관은 ‘KISED(창업진흥원)’으로 인식

액셀러레이터 중 ‘프라이머’, 벤처캐피탈 중 ‘알토스벤처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중 ‘카카오벤처스’를 가장 선호합니다.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로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카카오·삼성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창업진흥원·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산업진흥원이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호 액셀러레이터/VC/CVC/창업 지원 센터 1순위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창업지원 센터
1위	프라이머 (9.5%)	알토스벤처스 (16%)	카카오벤처스 (15.5%)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1.5%)
2위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8.5%)	KB인베스트먼트 (8.0%)	네이버 D2SF (10.0%)	서울창업허브 (9.5%)
3위	블루포인트 (8.0%)	소프트뱅크벤처스 (7.5%)	삼성벤처투자, 신한벤처투자, 두나무앤파트너스, 현대자동차 제로원, GS벤처스 (5.5%)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본투글로벌) (9.0%)

스타트업 지원 적극적 기관 인식 1순위

기업	공공기관
네이버 (25.5%)	KISED(창업진흥원) (29.5%)
카카오 (20.5%)	CCEI(창조경제혁신센터) (15.5%)
삼성 (10.5%)	SBA(서울산업진흥원) (9.5%)

[Base: 창업자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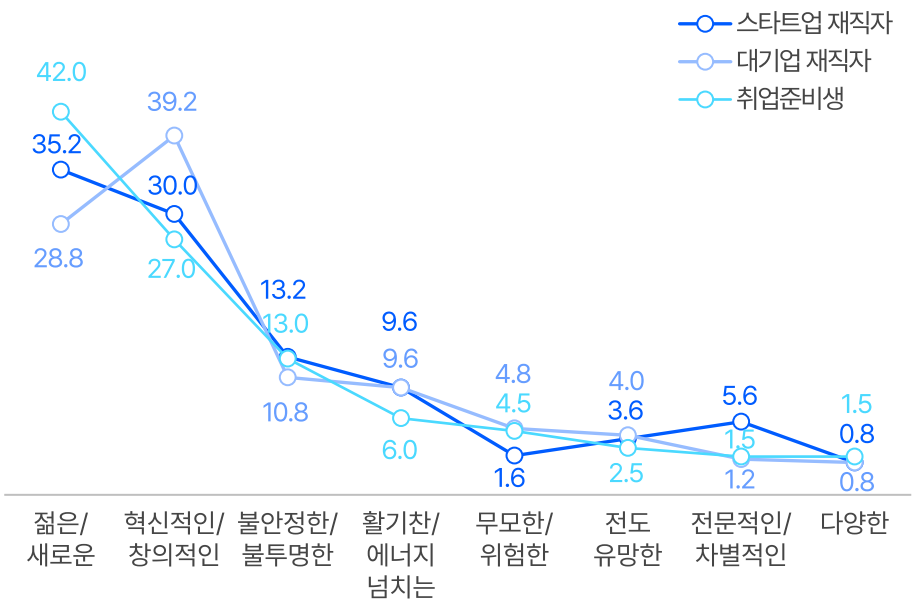
스타트업 전반 인식

스타트업은 '젊은/새로운'·'혁신적/창의적인' 이미지이며, 재직자 사이에서 가장 빠른 성장으로 인식되는 국내 스타트업은 '토스'

스타트업 재직자·대기업 재직자·취업준비생 모두 스타트업을 '젊은/새로운'·'혁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로 주로 인식합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관심 있는 국내 스타트업으로 스타트업 및 대기업 재직자는 '토스'를, 취업준비생은 '당근마켓'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연상 이미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 준비생
(Base)	(250)	(250)	(200)
토스	13.6	14.4	6.0
당근마켓	8.4	6.0	8.5
배달의민족	6.0	6.8	7.0
카카오	2.4	3.6	4.0
마켓컬리	2.0	4.4	3.0
쿠팡	2.8	1.6	2.5
무신사	2.0	0.4	2.5
야놀자	2.8	0.4	0.0
없다/모름	18.8	30.8	46.5

일하는 방식 알고 싶은 스타트업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 준비생
(Base)	(250)	(250)	(200)
토스	15.2	11.2	5.0
당근마켓	9.2	5.2	10.0
배달의민족	9.2	8.4	4.0
카카오	1.6	2.8	3.5
마켓컬리	1.2	2.0	2.5
무신사	2.4	0.8	2.0
쿠팡	1.6	1.2	0.5
없다/모름	29.2	47.2	57.5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대기업 재직자 (n=25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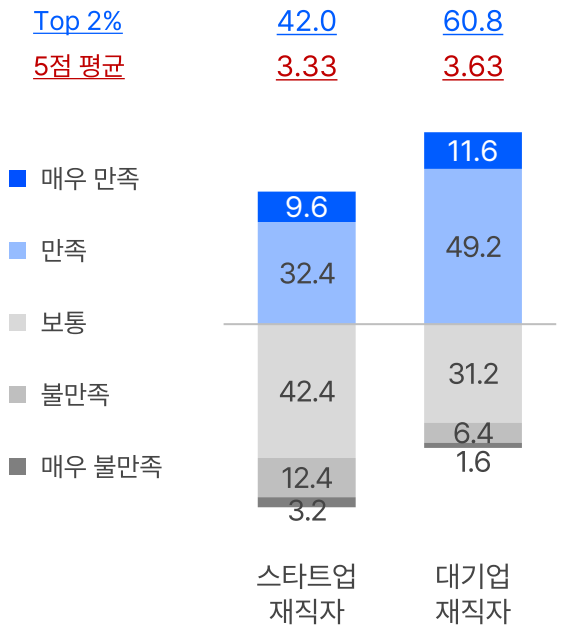
현 재직 직장 근무 만족도

대기업 재직자 대비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가 낮으며, '낮은 재정적 보상'·'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이 주요 불만족 사유

현 재직 직장에 대해 대기업 재직자의 60.8%가 만족한 반면,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도는 42.0%로 과반에 못 미칩니다. (5점 척도 Top2%: 만족+매우 만족 기준)

스타트업 재직자의 불만족 사유는 주로 낮은 재정적 보상·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 측면입니다.

재직 직장 근무 만족도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만족 이유	1위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41.6	복리/복지 혜택	49.2
	2위	워라밸의 보장	40.4	기업 인지도 높음	44.8
	3위	유연하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	36.4	워라밸의 보장	42.8
	4위	업무 및 커리어 개발	21.6	높은 재정적 보상	37.2
	5위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18.0	업무 및 커리어 개발	20.8
불만족 이유	1위	낮은 재정적 보상	41.2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	42.4
	2위	불안정한 조직의 비전 및 전략	38.4	유연하지 못한/느린 의사결정 구조	35.6
	3위	낮은 기업 인지도	28.8	낮은 재정적 보상	28.0
	4위	적은 복리/복지 혜택	27.2	공정하지 않은 업무/성과 평가	25.2
	5위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	26.8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	24.4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5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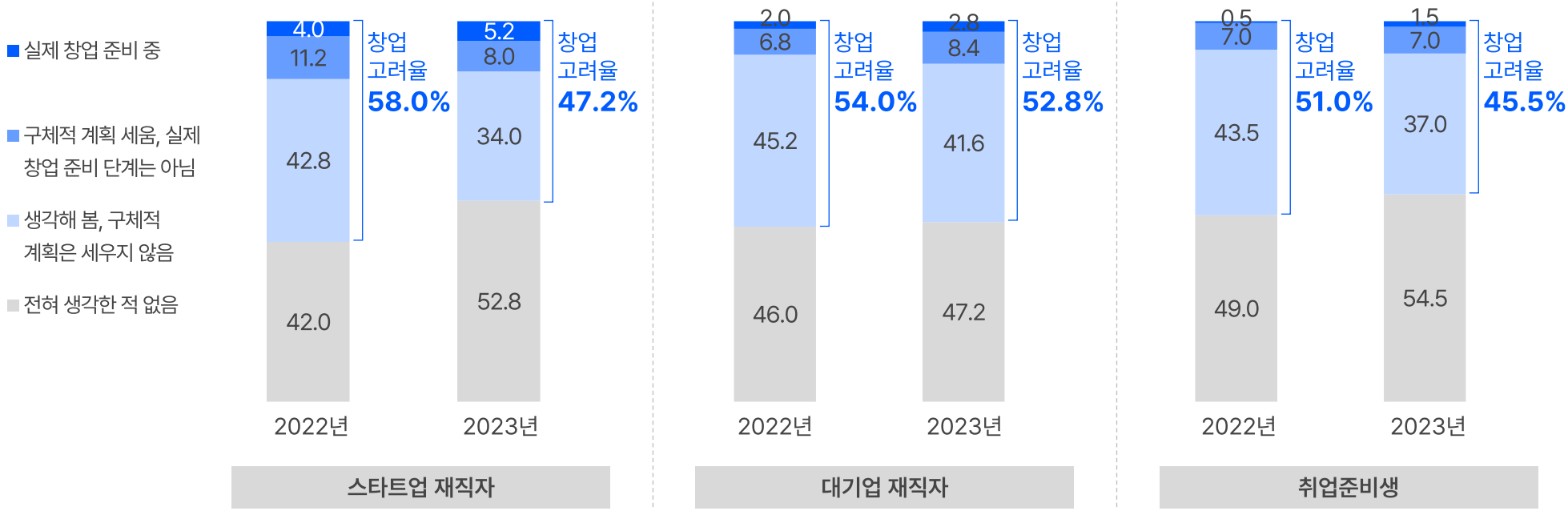
창업 관련 현황

스타트업 재직자·대기업 재직자·취업준비생의 창업 고려율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함

1년 동안 스타트업 재직자의 47.2%, 대기업 재직자의 52.8%, 취업 준비생의 45.5%가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각각 10.8%p, 1.2%p, 5.5%p 감소한 수치입니다.

창업 고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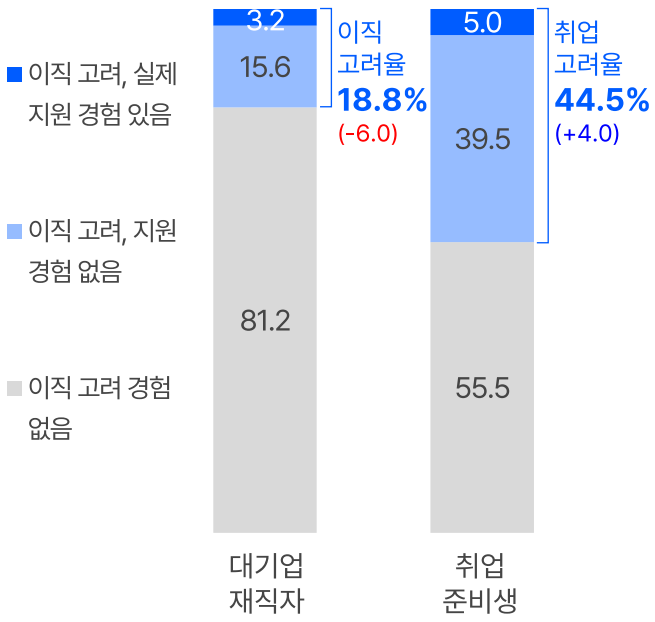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대기업 재직자 (n=25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스타트업 이직/취업 관련 인식

최근 1년 동안 대기업 재직자 18.8%·취업준비생 44.5%가 스타트업 이직/취직을 고려함

지난 1년 동안 대기업 재직자 18.8%, 취업준비생 44.5%가 스타트업으로 이직 및 취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대기업 재직자의 스타트업 이직 고려율은 전년 대비 6%p 감소한 반면, 취업준비생의 취업 고려율은 4%p 증가하였습니다.
대기업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모두 '워라밸 비보장'·'조직 비전/전략 불안정'·'낮은 재정적 보상'을 주요 스타트업 이직/취업의 허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취업 고려 여부



		대기업 재직자		취업준비생	
고려 이유	1위	높은 재정적 보상	40.4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신속	41.6
	2위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신속	38.3	업무/커리어 개발이 가능	39.3
	3위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34.0	워라밸 보장,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34.8
	4위	조직 비전/전략 선호	27.7	높은 재정적 보상, 복리/복지 혜택 기대	18.0
	5위	업무/커리어 개발 가능, 조직문화 선호	25.5	조직 문화 선호, 조직 비전/전략 선호	15.7
비고려 이유	1위	조직 비전/전략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	41.4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48.1
	2위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36.5	조직 비전/전략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	36.9
	3위	재정적 보상이 낮을 것 같아서	35.0	재정적 보상이 낮을 것 같아서	35.1
	4위	복리/복지 혜택이 적을 것 같아서	21.7	업무/커리어 개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24.3
	5위	회사 성장 기대가 어려울 것 같아서	19.7	복리/복지 혜택이 적을 것 같아서	18.9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최근 스타트업 시장 현황 인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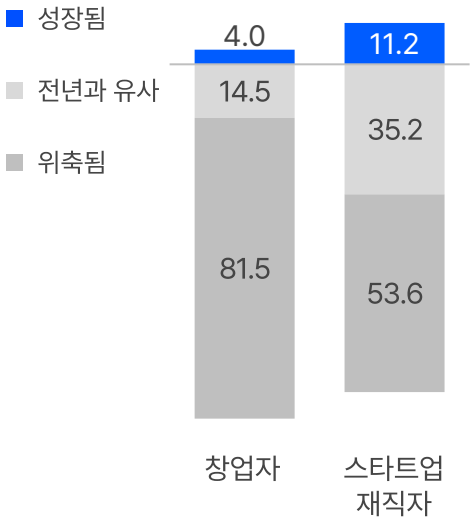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전년 대비 위축된 것으로 평가되며, 창업자들은 투자 유치에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창업자의 81.5%, 스타트업 재직자의 53.6%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작년 대비 위축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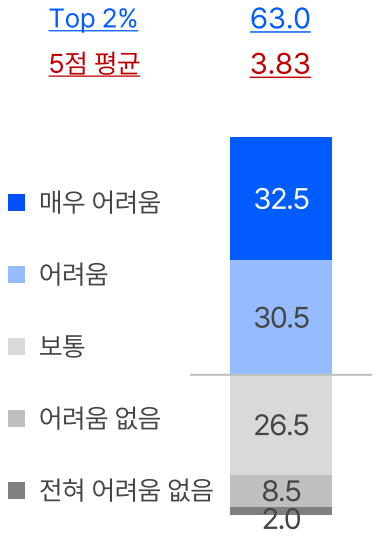
창업자의 63.0%는 경기불황·고금리/금리인상·투자시장 위축 등으로 작년 대비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 대비를 위해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수익성 개선을 위해 흑사 사업에 집중'·'기업 비용 절감'·'정부지원사업 추진' 등을 고려합니다.

2023 스타트업 투자 시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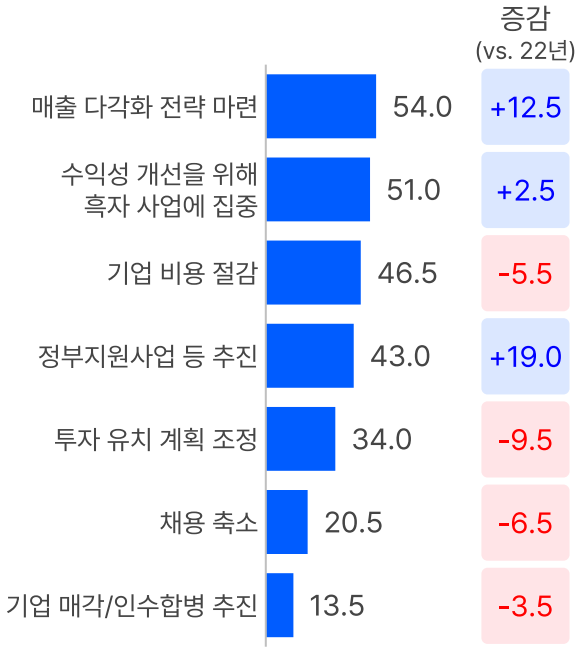
[창업자] 작년 대비 투자 유치 현황



투자유치 어려움 인식 이유 (n=126)

• 경기 불황	30.2
• 고금리/금리인상	15.1
• 투자시장 위축	11.9
• 시장상황 악화	9.5
• 투자 기준 변화/ 엄격한 투자 기준	7.1
• 매출/실적 위주의 투자	6.3

[창업자]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 리스크 대비책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란?**
글로벌 규모의 유동성 위기,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스타트업 시장에 투여되는 투자금 자체가 줄어들거나 투자 시장이 보수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금융위기로 '벤처투자 시장에 혹한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ase: 창업자 (n=200) /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5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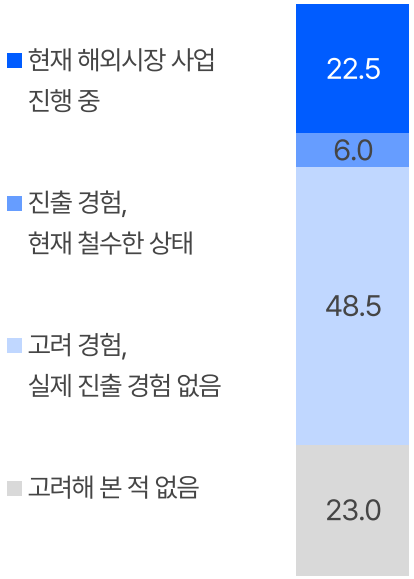
해외 시장 진출 고려/경험

스타트업의 22.5%는 현재 동남아시아, 북미,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확보’를 가장 우선적인 준비 요소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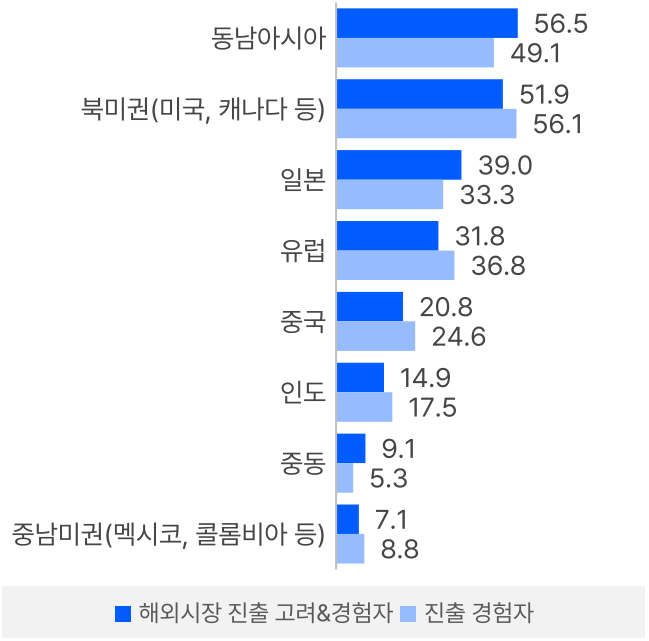
조사에 응한 창업자의 22.5%가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주로 동남아시아, 북미, 일본, 유럽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자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확보’, ‘현지 시장 정보 파악’, ‘유통망/판로 개척 및 확보’를 중요한 준비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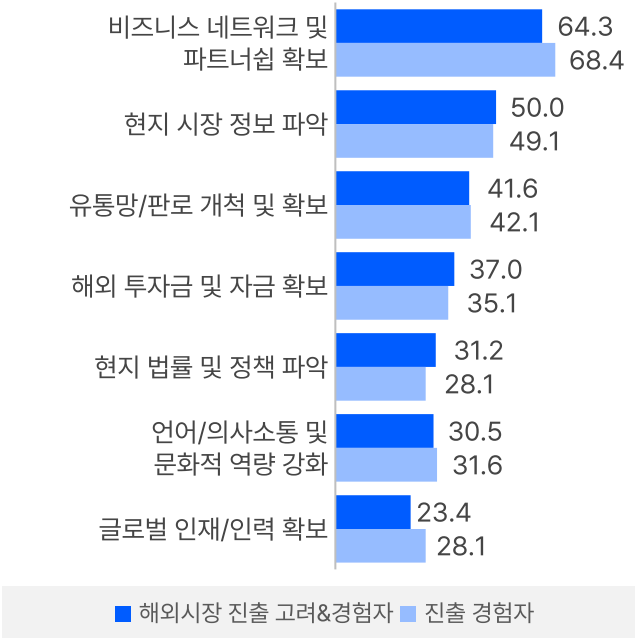
해외 시장 진출 고려/경험



진출/고려 해외 지역



해외 진출 시 우선 준비 요소



[Base: 창업자 (n=200) / 해외시장 진출 고려&경험자 (n=154) / 해외시장 진출 경험자 (n=57), Unit : %]

해외 시장 진출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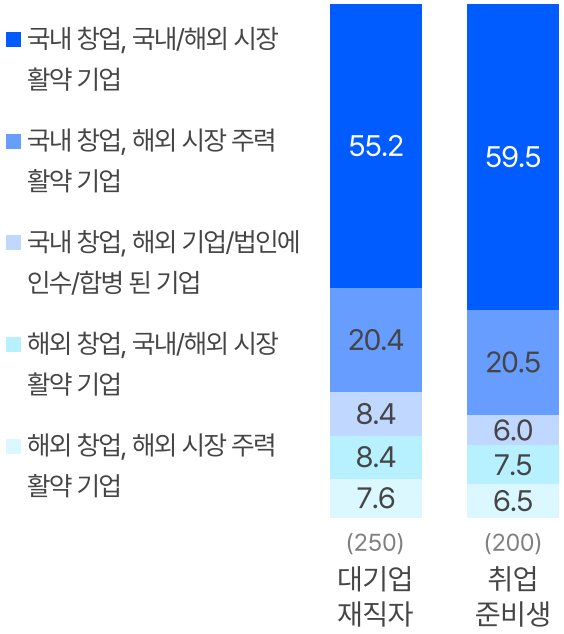
스타트업 이직/취업 고려 시 4명 중 1명은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선호함

대기업 재직자 및 취업 준비생 과반 이상이 "해외 진출 스타트업"에 대해 '국내 창업, 국내/해외 시장 활약 기업'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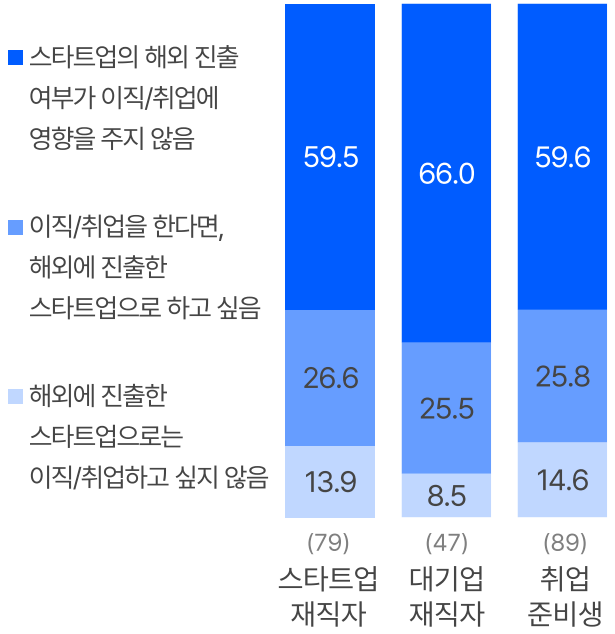
스타트업 이직/취업 고려자 중 대다수는 해외 진출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해외 진출 스타트업 이직/취업 선호자는 모두 25~27%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경우, '글로벌/국제화 역량 성장'을 가장 기대합니다.

해외 진출 스타트업 인식



스타트업 이직/취업 고려 시 해외 진출 여부 영향



해외 진출 스타트업 이직 희망 이유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 재직자	취업 준비생
(Base)	(21*)	(12*)	(23*)
글로벌/국제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76.2	58.3	60.9
업무/커리어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서	38.1	25.0	47.8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38.1	16.7	8.7
높은 재정적 보상을 기대	33.3	25.0	43.5
조직 비전/전략이 마음에 들어서	19.0	25.0	17.4
기업의 인지도가 높을 것 같아서	19.0	16.7	21.7
워라밸이 보장될 것 같아서	14.3	25.0	4.3

*Small Base (n<30),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대기업 재직자 (n=250) / 취업준비생 (n=200), Unit : %]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1. 창업자

규모 총 200명

대상 창업자/공동창업자 (리멤버의 창업자 Pool 활용)

연차 3년차 이하 76명(2020 ~ 2023년 창업)
4년-5년차 64명(2018 ~ 2019년 창업)
6년차 이상 60명(2017년 이전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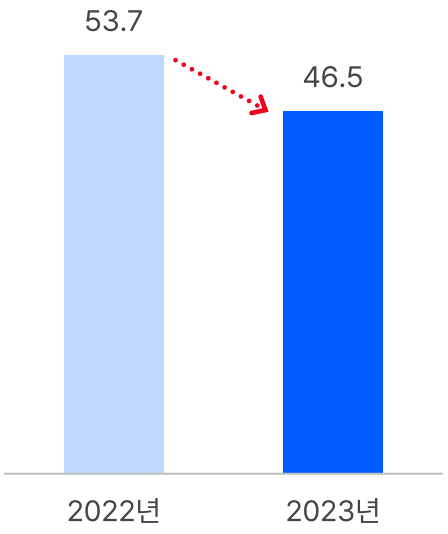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는 46.5점으로, 투자 위축/감소, 경기 침체 등 작년보다 악화된 상황 체감 중

창업자들이 평가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는 100점 만점 중 평균 46.5점으로 작년 대비 7.2점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투자 위축/감소·경기 침체·시장 분위기 위축 등의 측면에서 최근 스타트업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평가



부정 평가 이유

투자/시장 상황	**43.5**
• 투자 위축/감소	30.0
• 자금 시장 경색	5.0
스타트업 운영	**33.5**
• 스타트업 파산/폐업	8.0
• 인재확보 어려움	5.0
• 경영악화/적자	4.0
• 인원감축/구조조정	3.0
인식	**19.0**
• 시장 분위기 위축	10.5
•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나쁨	3.0
경제/금리 상황	**15.5**
• 경기 침체	12.5

"투자도 위축되고 스타트업에 고급인력들이 떠나고 있음"

"투자시장 감소 및 소비력 위축으로 인한 신규사업에 대한 관심 저하"

"수익모델 약한 가운데 자금 투자 시장 냉각 엔지니어 임금 부담가중"

"수치 위주의 투자집행에 따른 스타트업들의 초기 투자유치 난항"

"경제 자체가 위축되고 시장이 위축됨에 따른 영업활동 감소"

"이전 으쌰으쌰 하던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
임원 감축 등 분위기가 좋지 않음"

"투자환경이 경색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정부의 출자를 받은 펀드들도 투자 집행에 소극적인 기조임."

[Base: 창업자 (n=200), Unit : %]
*부정 평가 이유 : 3% 미만 응답 절삭

Q.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입니까? /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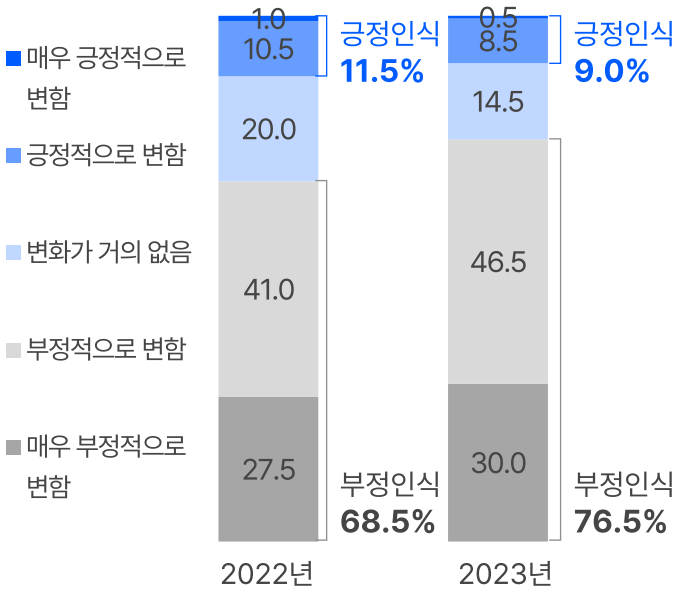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투자/지원·민간 부문 지원사업 약화 등에서 시장 상황의 부정적 변화를 체감함

76.5%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작년 부정 인식 대비 8%p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로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투자/지원·민간 부문(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의 지원사업 약화·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 저하·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인식



부정 변화 인식 이유 (n=182)

•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투자 및 지원	58.8
•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지원사업 약화	36.3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저하	34.6
•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유지	34.6
• 저조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24.7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지속	24.2
•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저조	21.4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인위적 정책 드라이브	19.8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미흡	11.5

긍정 변화 인식 이유 (n=18*)

•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55.6
• 역량있는 우수 인재 유입 확산	38.9
•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증가	33.3
• 정부 및 공공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27.8
• 신규 비즈니스 시장 진입 환경의 개선	22.2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22.2
• 기술경영, 지식재산권, 특허 등 기술력 보호 및 지원 강화	16.7
• 활성화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16.7
• 대기업과의 조화로운 산업 구조 달성	11.1

*Small Base (n<30), [Base: 창업자 (n=200), Unit : %]
*부정/긍정 변화 이유: 1+2+3순위 기준 *10% 미만 응답 절삭

Q. 지난해(2022년)와 비교 시,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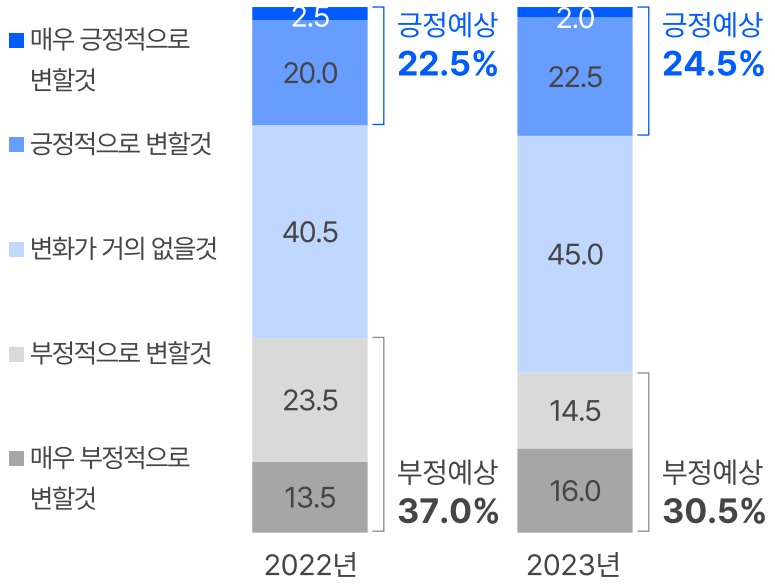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대부분 2024년에도 지금의 분위기/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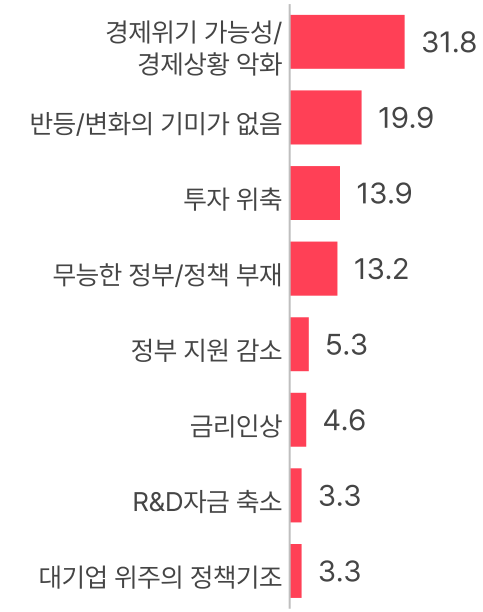
창업자의 45.0%는 2024년에도 지금의 분위기에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30.5%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긍정보다는 '현상 유지/부정' 예상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주로 '경제위기 가능성/경제상황 악화 예상' 및 '반등/변화 기미가 체감되지 않음'에서 기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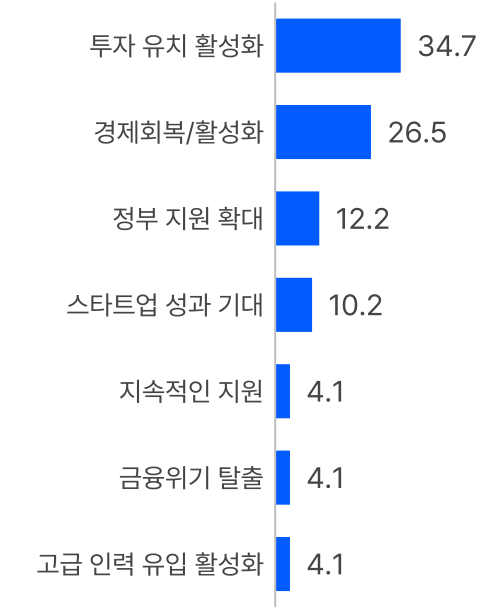
향후 1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변화 예상



현상 유지/부정 변화 전망 이유 (n=151)



긍정 변화 전망 이유 (n=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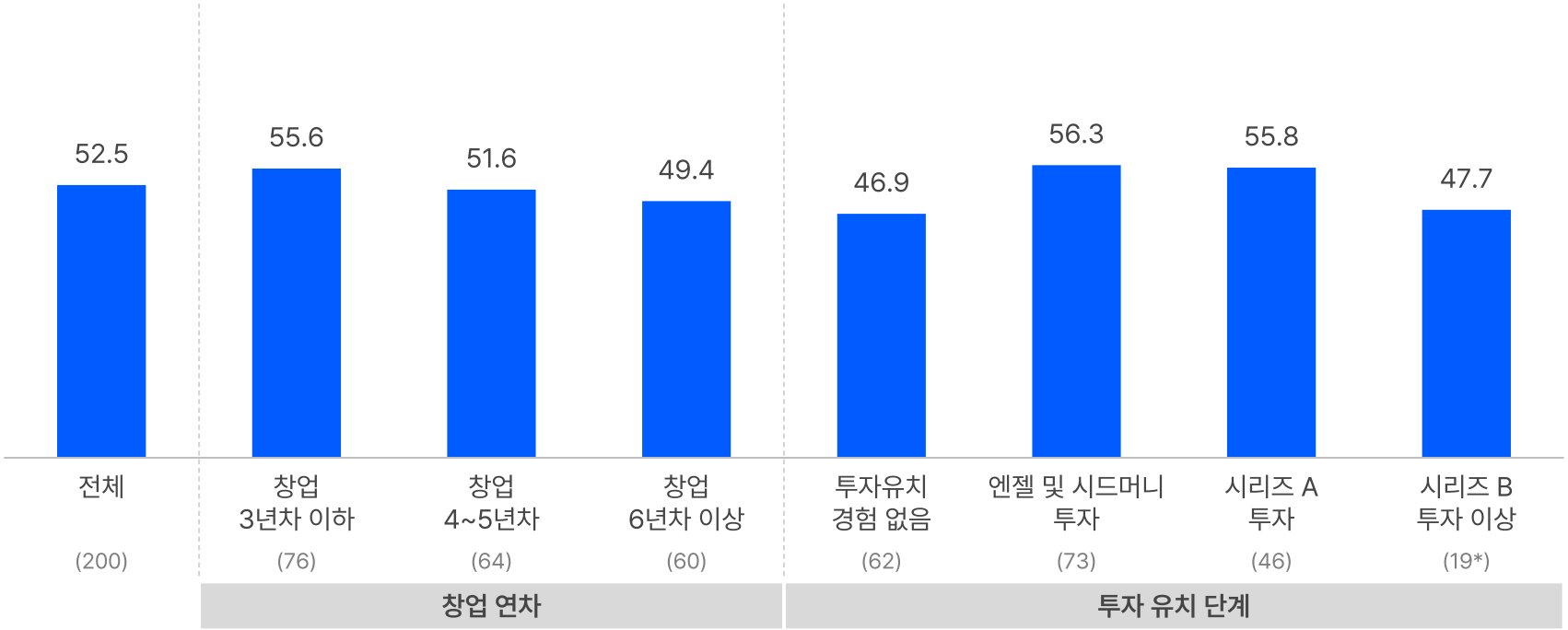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Unit : %]
* 부정변화 이유 3% 미만/긍정 변화 이유 4% 미만 응답 절삭

Q. 앞으로 일 년 후(2024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부 역할 평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52.5점이며, 창업 연차가 높을수록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측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52.5점을 주었습니다.
창업 연차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Small Base (n<30), [Base: 창업자 (n=200), Unit : %]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

‘사업비 지원’을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으로 인식하며, 추가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제도 개선을 기대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됐던 정부정책으로 창업자 절반이 ‘사업비 지원’을 꼽았습니다.

전년 대비 ‘연구 및 기술개발(R&D) 부문 지원’ 선택 비율은 9.5%p 감소한 반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은 6.5%p 증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움 정부정책

추가 정부 역할 기대사항

• 투자/자금 지원 확대	16.5
•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11.0
• 세제 지원 (소득세 감면, 인건비 보조 등)	9.5
• 지원 활성화	9.0
• 지속적인/일관성 있는 지원	6.5
• 초기 자금/자본 직접 투자	5.0
• 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R&D) 지원	4.0
• 다양한 기업에 투자/지원	4.0
• 절차 간소화	4.0
• 다양한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3.5
• 유망 스타트업 지원	3.5

[Base: 창업자 (n=200), Unit : %]
*기대사항 3% 미만 응답 절삭

Q.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정부가 어떤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정부 시급 개선점

작년 대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관련 정부의 시급 개선 과제로 '각종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함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정부 시급 개선점으로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29.5%)·'각종 규제 완화'(25.0%)가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전년 대비 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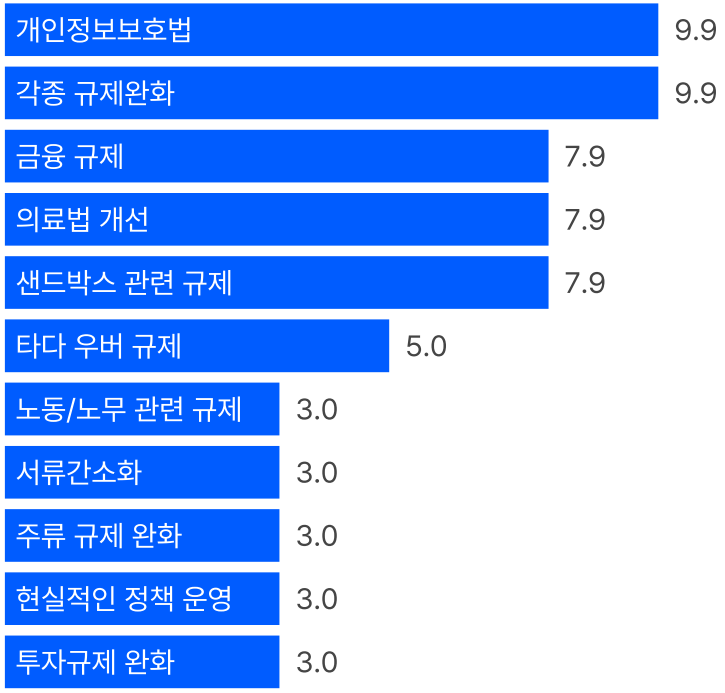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Unit : 1순위%]

Q.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화가 시급한 정부 규제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 완화 필요한 정부 규제로 '개인정보보호법'·'금융 규제'·'의료법'·'샌드박스 관련 규제' 등이 응답됨

완화 필요한 정부 규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금융 규제'·'의료법'·'샌드박스 관련 규제' 등 각 분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이용관련 규제 완화"

"수출입 관련 FTA 가입국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 금융 시장과 관련한 규제 완화. 토큰증권 활성화. 혁신금융 이라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샌드박스에서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기업은 극소수"

"공유차량 타다의 예처럼 비즈니스 활성화 저해요소 신속한 규제 해소를 하지 못 함"

"신설 법규 기술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 부족에 따른 인허가 지연"

"비대면 서비스 관련 의료 핀테크 개인정보 등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음"

"샌드박스 제도를 추가 개선해서 보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 지길 바랍니다. 또한 샌드박스를 통해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아이디어들은 빠르게 법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샌드박스를 거친 후에도 법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정부 사업 준비 시, 제반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부 내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이 대부분인데 다 오프라인 출력하여 다시 스캔 제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여 과정 관리를 해야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문서를 다 만들 수 있음"

[Base: 정부 시급 개선 과제로 '규제완화' 선택자 (n=101), Unit : %]
* 3% 미만 응답 절삭

Q. 완화가 필요한 규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영 관련 어려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분야)

회사 운영과 관련해 주로 '투자 관련'·'자금 확보'·'성장 전략' 관련 조언을 희망함

스타트업 창업자는 주로 투자 관련·자금 확보·성장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초기(3년차 이하)에는 '전략 로드맵'에 대한 조언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합니다.

■ 1+2+3순위 ■ 1순위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 및 시드머니 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00)	(76)	(64)	(60)	(62)	(73)	(46)	(19*)
투자 관련	26.5 51.0	50.0	56.3	46.7	41.9	58.9	56.5	36.8
자금 확보	18.5 49.0	51.3	45.3	50.0	59.7	53.4	39.1	21.1
성장 전략	13.0 42.5	42.1	39.1	46.7	43.5	43.8	45.7	26.3
전략 로드맵	9.5 28.5	38.2	20.3	25.0	40.3	21.9	26.1	21.1
조직 관리	6.0 24.5	15.8	31.3	28.3	11.3	24.7	34.8	42.1
경영 전반	9.5 23.5	26.3	18.8	25.0	32.3	17.8	13.0	42.1
해외/글로벌 진출	7.0 21.0	17.1	23.4	23.3	9.7	20.5	23.9	52.6
인사 관리	6.0 17.5	13.2	23.4	16.7	11.3	17.8	21.7	26.3
의사결정 구조/시스템	4.0 11.0	6.6	12.5	15.0	6.5	13.7	8.7	21.1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Small Base (n<30), [Base: 창업자 (n=200), Unit : %]
* 배너는 1+2+3순위 기준

Q. 창업하신 회사 운영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투자 유치 시 어려움

투자 유치 시 '회사 가치(밸류에이션) 산정' 및 '제품 서비스 이해/설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투자 유치 시 가장 많은 창업자가 경험한 어려움은 '회사 가치 산정과 인정'(38.0%) 이었으며, 다음으로 '제품 및 서비스 이해/설득 시키기'(26.0%)가 주로 선택되었습니다.

창업 초기(3년차 이하)의 경우, '엄격한 자격요건과 심사 절차'를 꼽은 비율(15.8%)이 창업 4년차 이상 대비 높게 나타납니다.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 및 시드머니 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00)	(76)	(64)	(60)	(62)	(73)	(46)	(19*)
회사 가치 산정과 인정	38.0	32.9	42.2	40.0	35.5	34.2	43.5	47.4
제품 및 서비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26.0	23.7	26.6	28.3	22.6	30.1	23.9	26.3
투자자에 대한 정보 파악	14.0	13.2	15.6	13.3	17.7	13.7	13.0	5.3
투자유치 조건 협의	9.0	9.2	12.5	5.0	4.8	11.0	13.0	5.3
엄격한 자격요건과 심사 절차	9.0	15.8	1.6	8.3	16.1	4.1	6.5	10.5
기타	4.0	5.3	1.6	5.0	3.2	6.8	0.0	5.3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Small Base (n<30), [Base: 창업자 (n=200), Unit : %]

Q. 투자 유치 상황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던 어려움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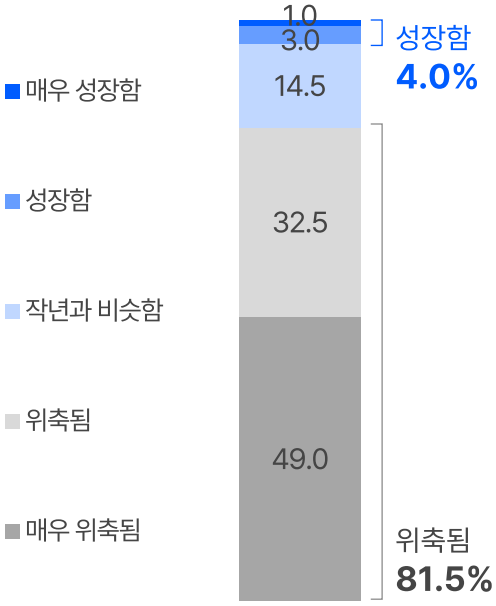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10명 중 8명은 전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며, 6명 가량은 투자 유치가 보다 어려워졌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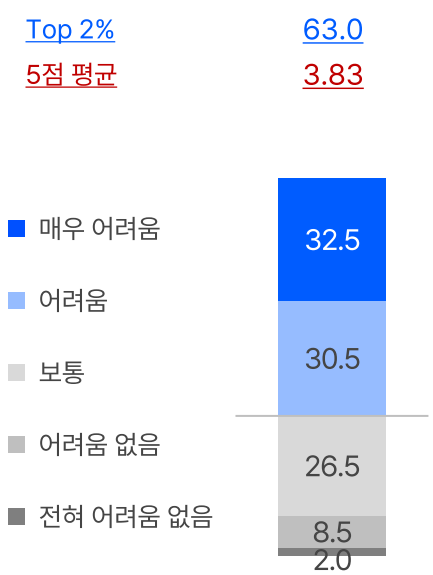
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81.5%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창업자의 63.0%는 주로 경기불황·고금리/금리인상·투자시장 위축 등으로 작년 대비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시장 인식



작년 대비 투자 유치 현황



작년 대비 투자 유치 어려워진 이유 (n=126)

경기/시장 상황	**50.0**
• 경기 불황	30.2
• 고금리/금리인상	15.1
• 시장상황 악화	9.5
• 불확실성 증가	4.0
투자시장 상황	**44.4**
• 투자시장 위축	11.9
• 투자 기준 변화/엄격한 투자 기준	7.1
• 매출/실적 위주의 투자	6.3
• 소극적 투자	4.8
• 기업가치 평가 보수성/하락	4.8
• 자금시장 경색	3.2
기업 운영 상황	**9.5**
• 매출감소	3.2
글로벌 환경	**5.6**
• 글로벌 경기 둔화	4.0
정책	**4.0**
• 정부 정책 변화	3.2

[Base: 창업자 (n=200), Unit : %]

*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이유 3% 미만 응답 절삭

Q. 지난해(2022년)와 비교해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창업하신 기업의 투자유치는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 관련 리스크 대비책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흑자 사업 집중·기업 비용 절감·정부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함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대비책으로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수익성 개선을 위해 흑자 사업에 집중'·'기업 비용 절감'·'정부지원사업 추진' 등을 고려합니다.

작년 대비 '정부지원사업 등 추진'을 리스크 대비책으로 고려하는 비중이 19%p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전체	2023년 전체	창업 연차			투자 유치 단계			
			창업 3년차 이하	창업 4~5년차	창업 6년차 이상	투자유치 경험 없음	엔젤 및 시드머니 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이상
(Base)	(200)	(200)	(76)	(64)	(60)	(62)	(73)	(46)	(19*)
매출 다각화 전략 마련	41.5	54.0	51.3	59.4	51.7	48.4	53.4	60.9	57.9
수익성 개선을 위해 흑자 사업에 집중	48.5	51.0	55.3	42.2	55.0	43.5	50.7	56.5	63.2
기업 비용 절감	52.0	46.5	43.4	48.4	48.3	40.3	47.9	52.2	47.4
정부지원사업 등 추진	24.0	43.0	50.0	45.3	31.7	48.4	49.3	32.6	26.3
투자 유치 계획 조정	43.5	34.0	32.9	40.6	28.3	25.8	39.7	34.8	36.8
채용 축소	27.0	20.5	14.5	18.8	30.0	19.4	15.1	28.3	26.3
기업 매각/인수합병 추진	17.0	13.5	6.6	15.6	20.0	12.9	12.3	19.6	5.3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 높음 (80%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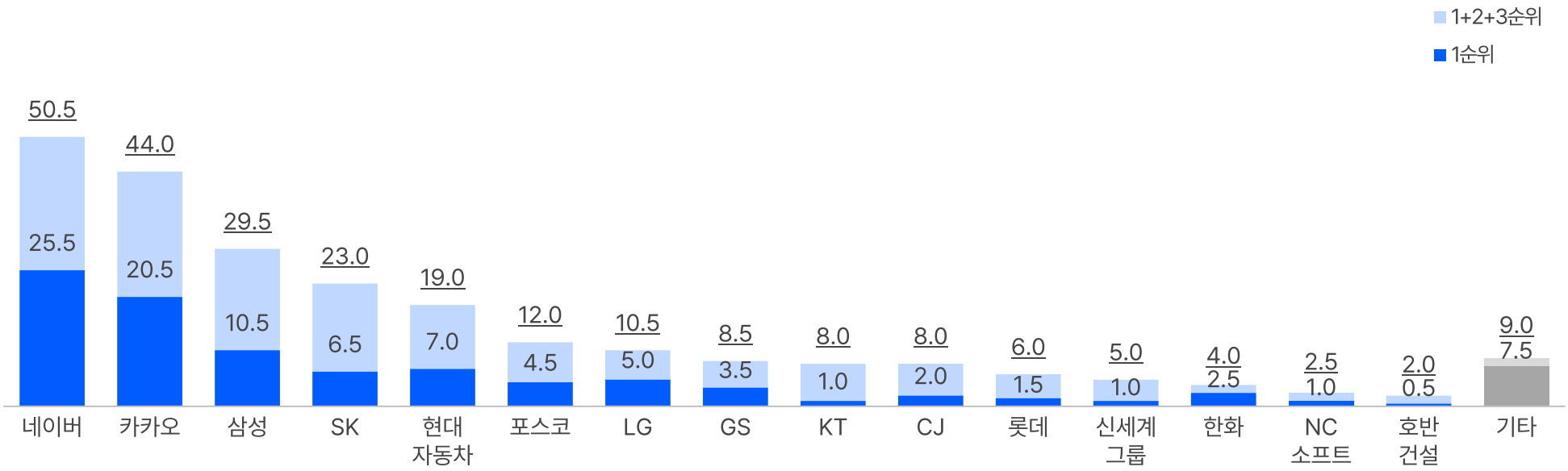
*Small Base (n<30), [Base: 창업자 (n=200), Unit : 1+2+3순위 %]

Q.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로 인해 발생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하실 예정 이신가요?

스타트업 투자/지원 적극 기업 인식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꼽은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네이버'·'카카오'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는 네이버·카카오가 주로 응답되었으며, 이어 삼성·SK·현대자동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Base: 창업자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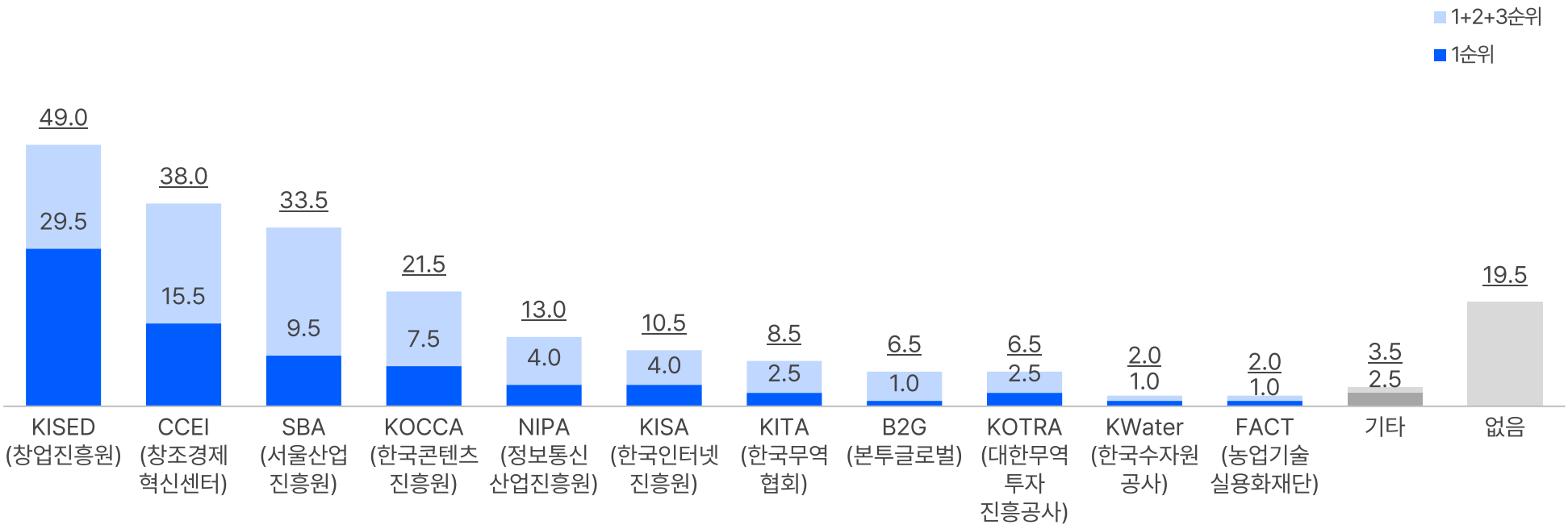
Q.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트업 투자/지원 적극 공공기관 인식

공공기관 중 'KISED(창업진흥원)'·'CCEI(창조경제혁신센터)'·'SBA(서울산업진흥원)'이 스타트업 투자/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인식

가장 많은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공공기관으로 'KISED(창업진흥원)'를 꼽았습니다.

이어, 'CCEI(창조경제혁신센터)'·'SBA(서울산업진흥원)'·'KOCCA(한국콘텐츠진흥원)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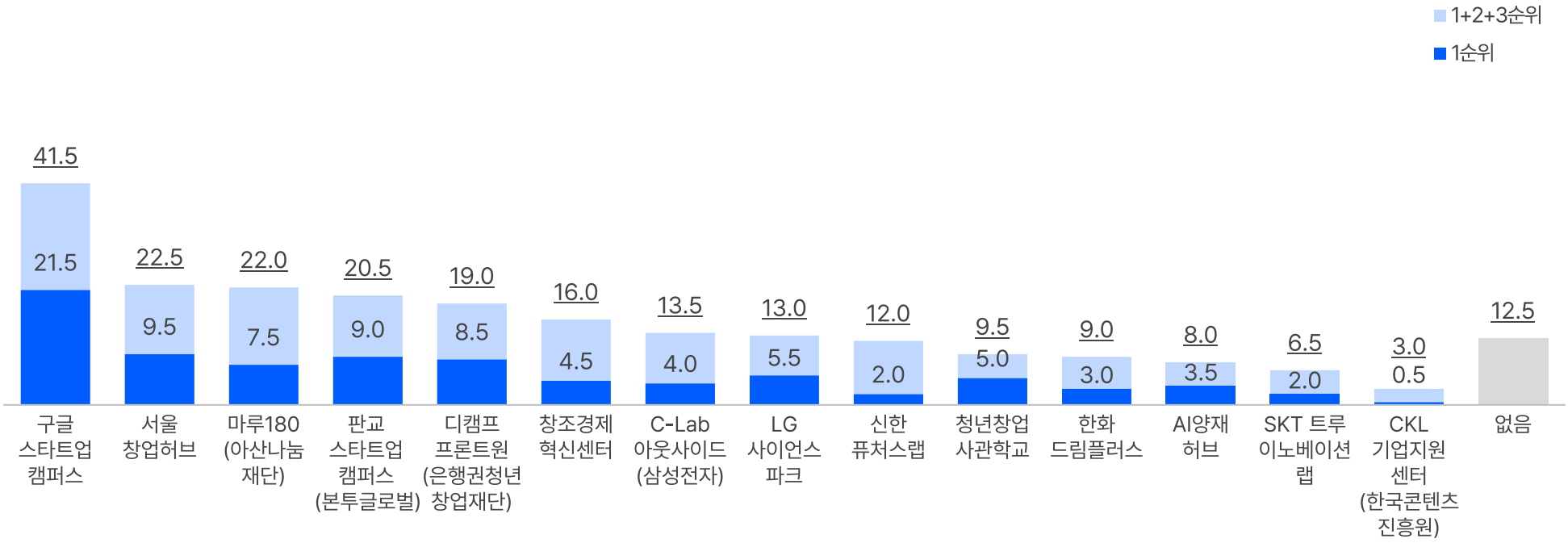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Unit : %]

Q.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공공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입주/활용 희망 창업지원센터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조사에 참여한 창업자의 21.5%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를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로 꼽았으며,
이어 서울창업허브·마루180·판교 스타트업캠퍼스·디캠프 프론트원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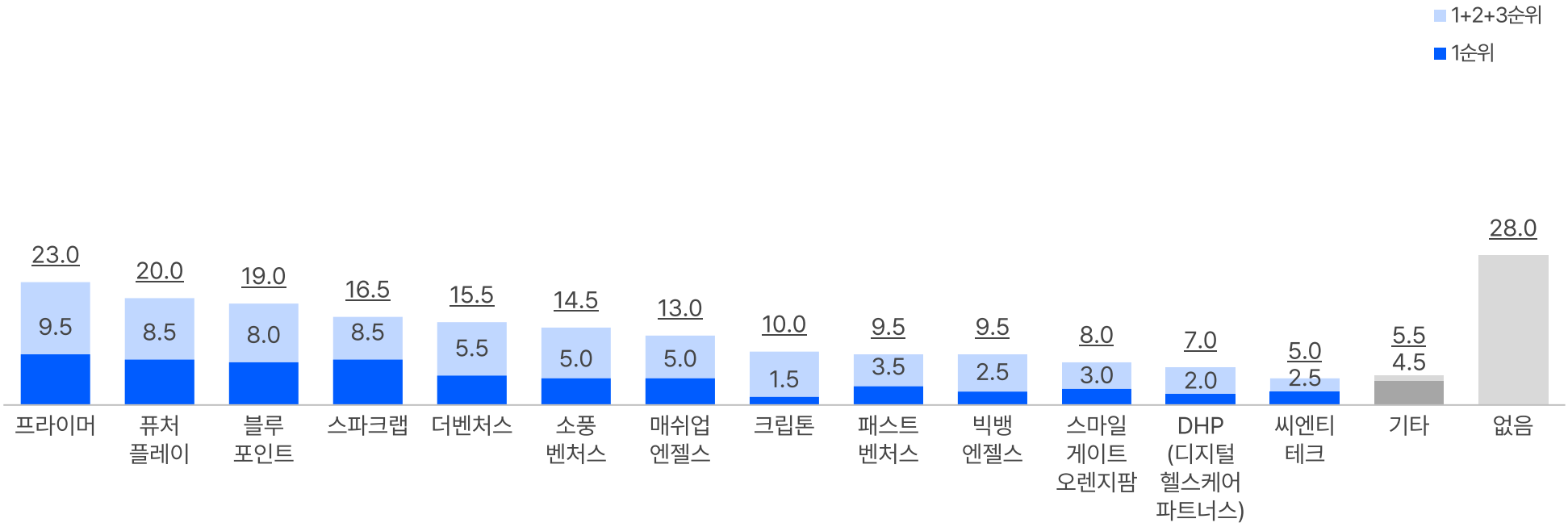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3%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입주/활용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는 어디인가요?

선호 액셀러레이터

선호 액셀러레이터로 '프라이머'·'퓨처플레이'·'블루포인트'·'스파크랩'·'소풍벤처스'·'매쉬업엔젤스' 등이 두루 응답됨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액셀러레이터로 프라이머·퓨처플레이·스파크랩이 순서대로 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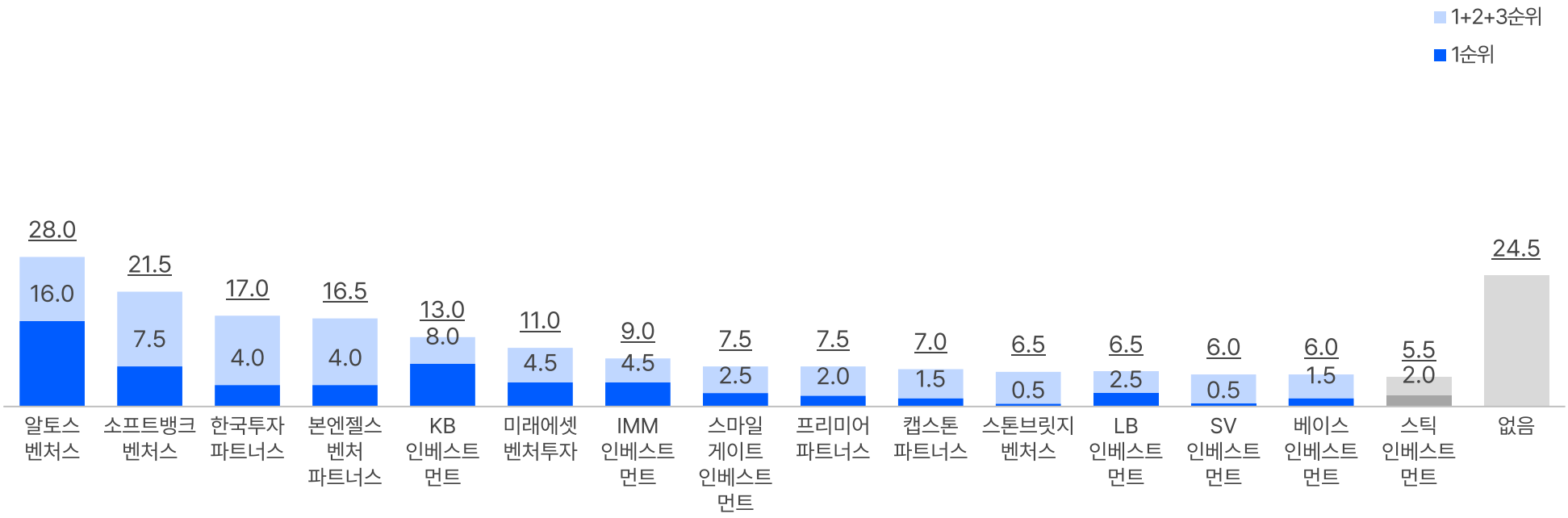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5%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선호하는 액셀러레이터는 어디인가요?

선호 벤처캐피탈

주요 선호 벤처캐피탈은 '알토스벤처스'·'소프트뱅크벤처스' 및 '한국투자파트너스'

창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벤처캐피탈로 '알토스벤처스'·'KB인베스트먼트'·'소프트뱅크벤처스'가 순서대로 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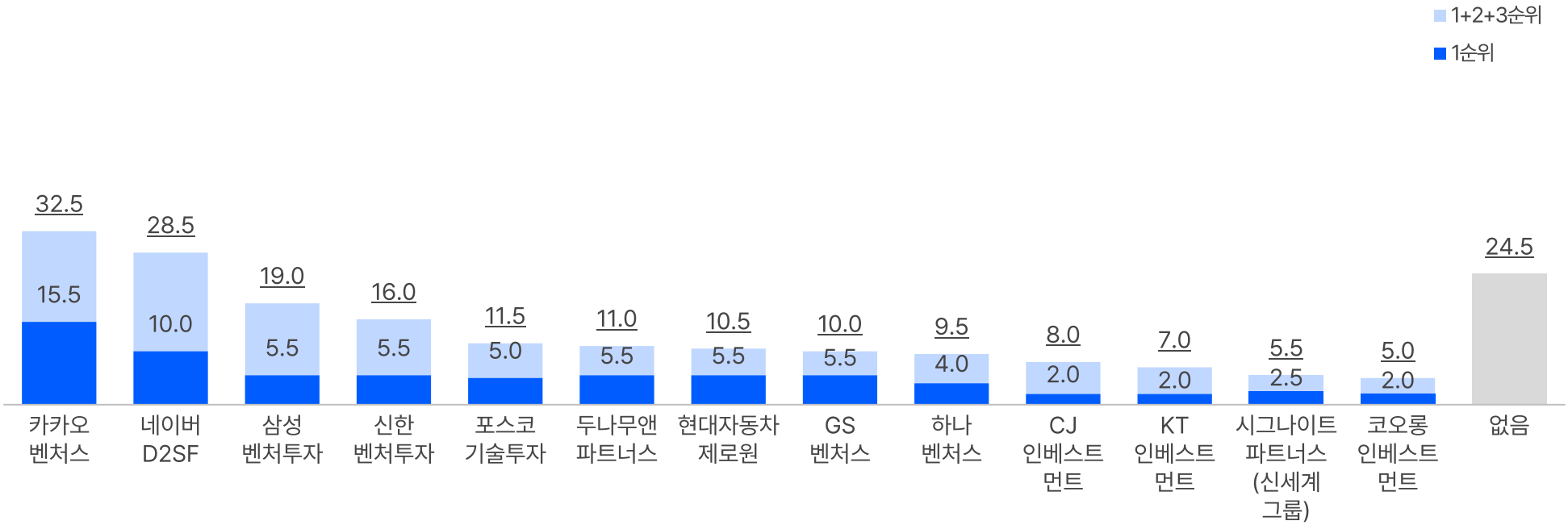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5% 미만 응답 절삭

Q. 가장 선호하는 벤처캐피탈(VC)은 어디인가요?

선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창업자들이 꼽은 가장 선호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카카오벤처스'

카카오벤처스가 선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어 네이버 D2SF·삼성벤처투자·신한벤처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Base: 창업자 (n=200), Unit : %]
* 1+2+3순위 기준 5%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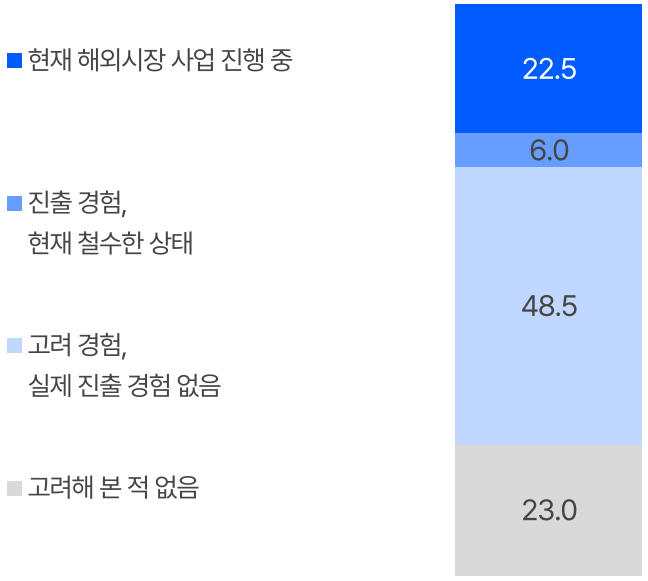
Q. 가장 선호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어디인가요?

해외 시장 진출 고려/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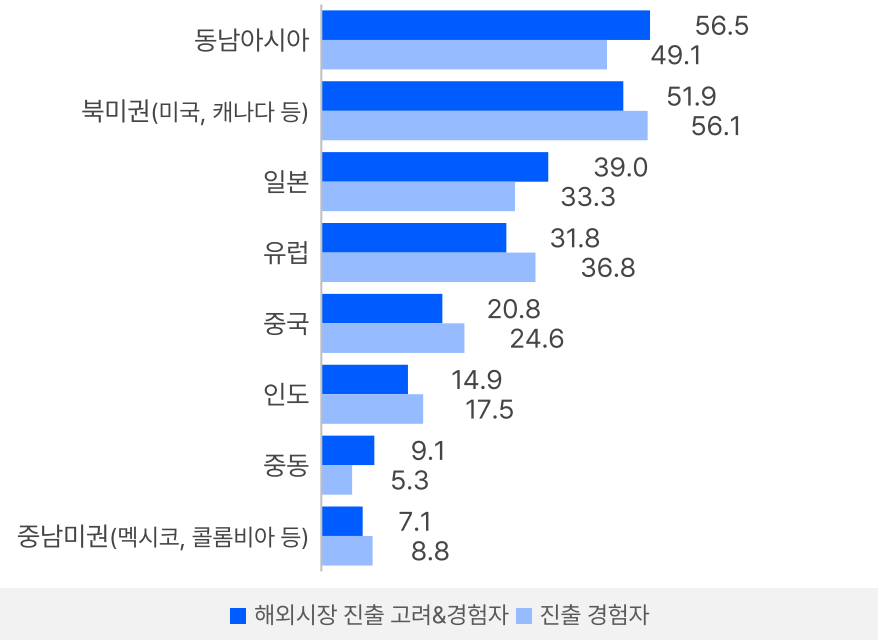
스타트업의 22.5%는 현재 동남아시아, 북미,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임

조사에 응한 창업자의 22.5%가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주로 동남아시아, 북미, 일본, 유럽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고려/경험



진출/고려 해외 지역



[Base: 창업자 (n=200) / 해외시장 진출 고려&경험자 (n=154) / 해외시장 진출 경험자 (n=57),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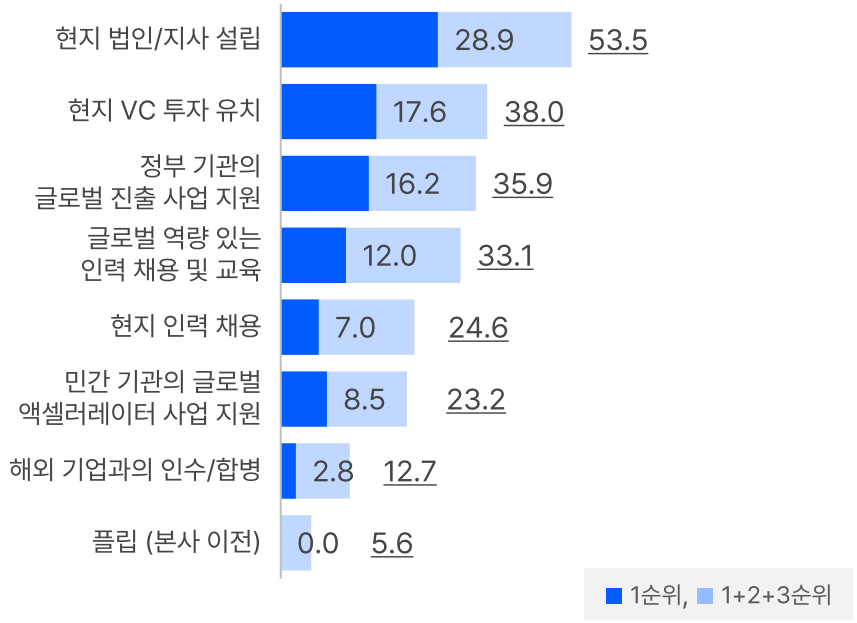
Q. 창업 회사의 해외 시장 진출의 고려/경험 여부 및 지역은 어디인가요? /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해외 진출 위해 준비하는 부분 및 해외 진출 비고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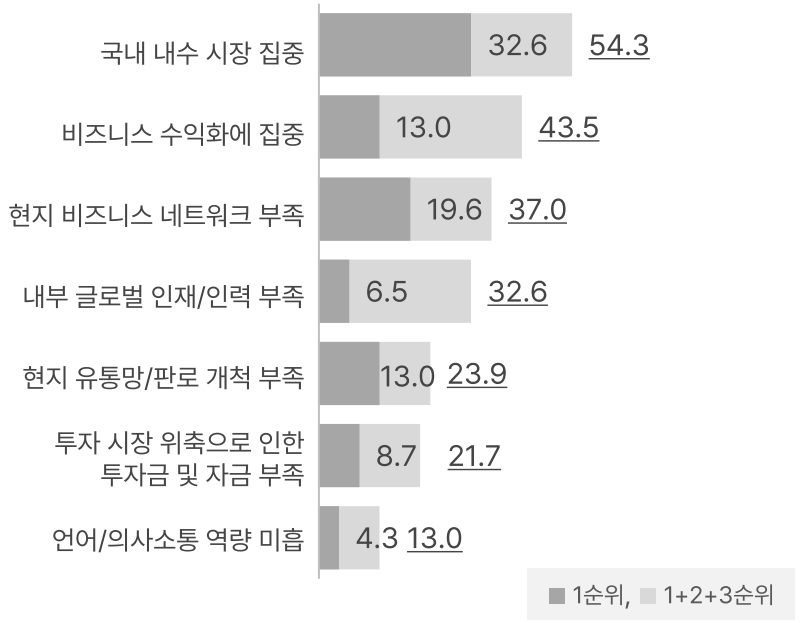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법인/지사 설립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부분으로 꼽힘

'현지 법인/지사 설립'·'현지 VC 투자 유치'·'정부 기관의 사업 지원' 등이 해외 시장 진출에 중요한 준비 요소로 꼽힙니다.
한편,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국내 내수 시장에 집중하기위해'·'비즈니스 수익화에 집중하기 위해' 등의 이유가 꼽힙니다.

해외 시장 진출 위해 준비하는 부분



해외 시장 진출 고려하지 않는 이유



[Base: 해외시장 진출 고려&현재 사업 진행중인 자 (n=142) / 해외시장 진출 고려해본 적 없는 자 (n=46),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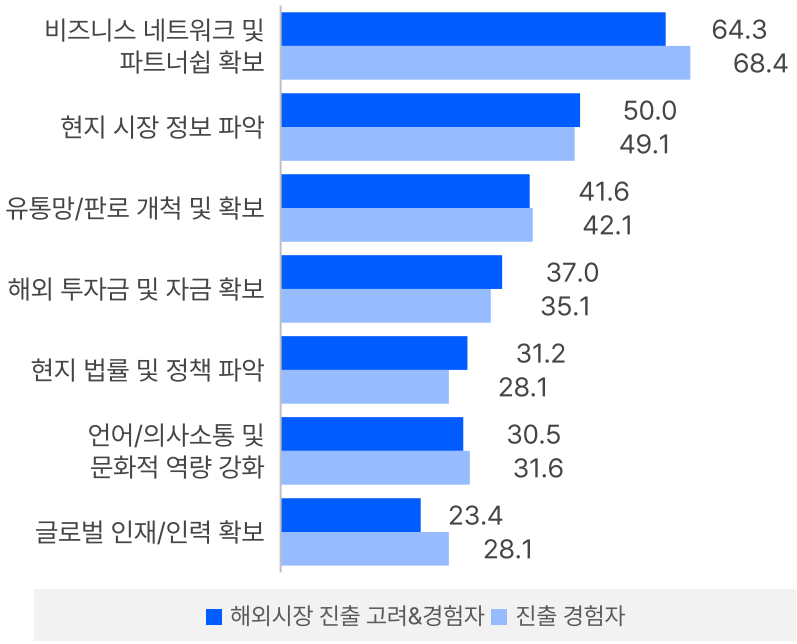
Q. 해외 진출을 위해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외 진출 시 준비 및 어려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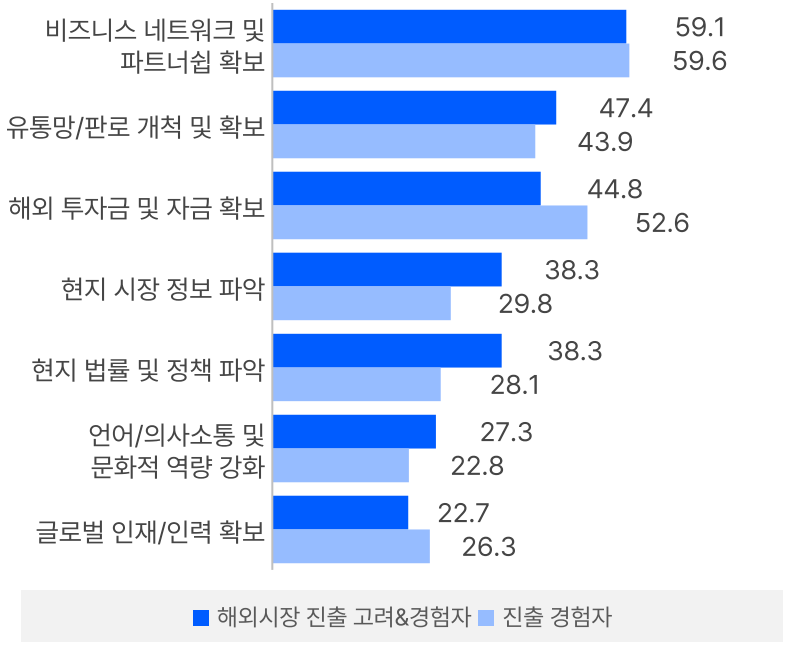
해외 진출 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요소 및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로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의 중요성이 꼽힘

그 이외 현지 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유통망/판로를 개척 및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한 준비 사항으로 꼽힙니다.
또한, 해외 진출 시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로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확보 이외에, 유통망/판로 개척 및 확보가 꼽히고, 특히 진출 경험자들은 해외 투자금/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합니다.

해외 진출 시 우선 준비 요소



해외 진출 시 어려움 느끼는 요소



[Base: 해외시장 진출 고려&경험자 (n=154) / 해외시장 진출 경험자 (n=57), Unit : %]

Q. 해외 진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해외 진출 시 어려움을 겪은 사례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나쉽 확보·해외 투자금/자금 확보·유통망/판로 개척 및 확보 영역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네트워크가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투자금/자금 측면에서도 필요한 자금 융통, 정부지원사업의 부재 등이 언급됩니다.
한편, 비즈니스 유통망/판로와 관련해서는 각종 법적·정책적 지원이 미비하고, 스타트업 단독으로 유통망 현지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확보

"해외 진출 시 도움 없이 자체 인력으로 개척해 나가는 게 리스크도 크고 어려움이 많기에,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레버리지 및 레퍼런스 삼아** 진출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 레퍼런스만 있는 상황인 만큼 **해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뢰를 쌓기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창업 3년 차 이하(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네트워크로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데 현지 인력이나 전문가를 채용 할 수도 없습니다."

– 창업 6년 차 이상(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의 네트워크로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데 현지 인력이나 전문가를 채용 할 수도 없습니다."

– 창업 6년 차 이상(모빌리티 분야)

"**KITA 및 KOTRA**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길 희망합니다."

– 창업 3년 차 이하(농식품 분야)

해외 투자금/자금 확보

"해외 진출로 1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국내에서 투자를 받지 않는 한 **이런 자금을 융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창업 초기 또는 매출이 작은 기업들은 자금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 창업 6년 차 이상(소프트웨어/솔루션 분야)

"해외에서 굳이 **리스크가 큰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기본 기조임**. 해당 나라의 인력이 C레벨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창업 6년 차 이상(딥테크 분야)

"계약 완료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외이기에 온라인 미팅의 한계점을 극복 해야함. 즉 **해외 바이어의 적극성이 있어야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음."

– 창업 4-5년 차 (게임 분야)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고 인도에서 직접 창업을 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점.**"

– 창업 3년 차 이하 (이커머스/유통 분야)

유통망/판로 개척 및 확보

"미국에 전혀 연고가 없다 보니 **법적으로나 보험 등 조언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 쪽에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있다면 이런 도움을 받거나 법률 쪽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수월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 창업 6년 차 이상(콘텐츠/미디어 분야)

"국내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하려는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이 달라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판로, 관련 네트워크와 규정 사전조사** 후 진출해야 하는데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그 일을 하기 힘듦**."

– 창업 6년 차 이상(교육 분야)

"일반적인 SW 업체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름을 알리고 리드를 모으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현지화를 하는데도** 노력이 많이 들어감."

– 창업 3년 차 이하(소프트웨어/솔루션 분야)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 확보**가 가장 힘들고 당사의 아젠다를 일치하는게 또 어렵다."

– 창업 3년 차 이하(헬스케어/바이오 분야)

[Base: 해외시장 진출 고려&경험자 (n=154), 주관식 응답

Q. 해외 진출에 있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어려우셨나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2. 스타트업 재직자

규모 총 2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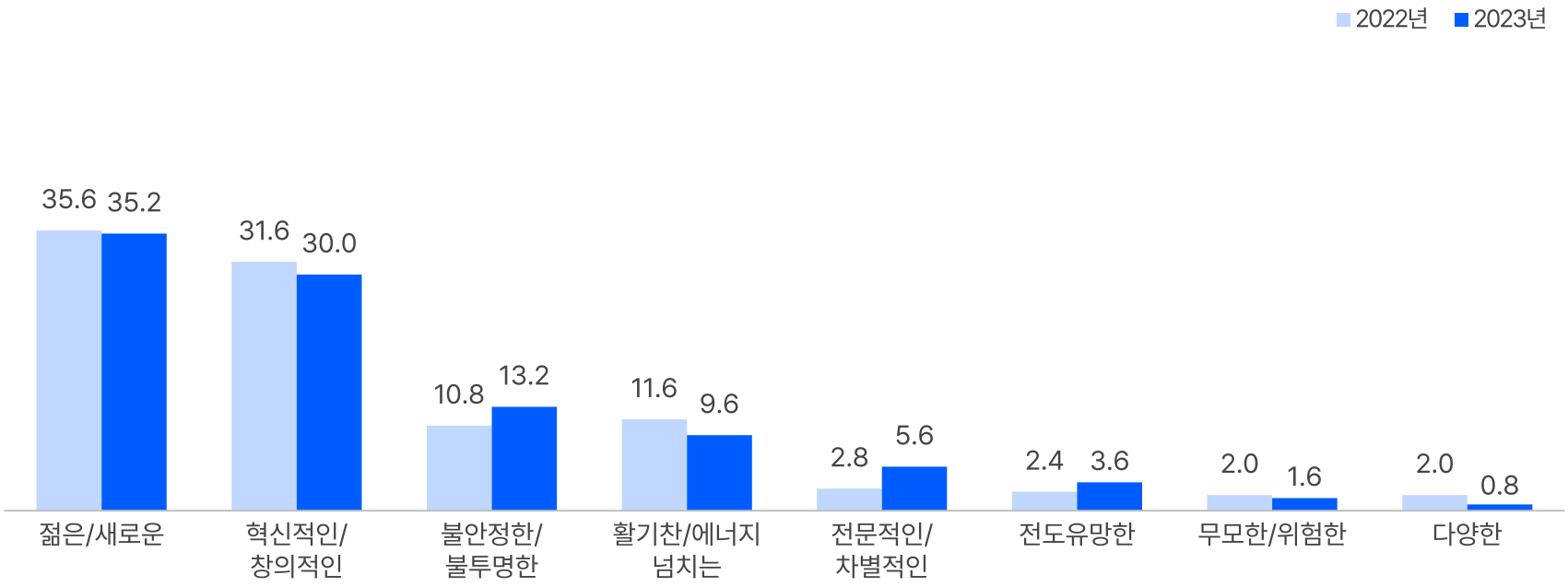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 재직자

스타트업 이미지

스타트업 재직자에게 스타트업은 '젊은/새로운'·'혁신적인/창의적인'·'불안정한/불투명한' 이미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스타트업 재직자들에게 스타트업 이미지는 '젊은/새로운' (35.2%)·'혁신적인/창의적인' (30.0%)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불투명한' 이미지 연상이 작년 대비 2.4%p 증가하였습니다.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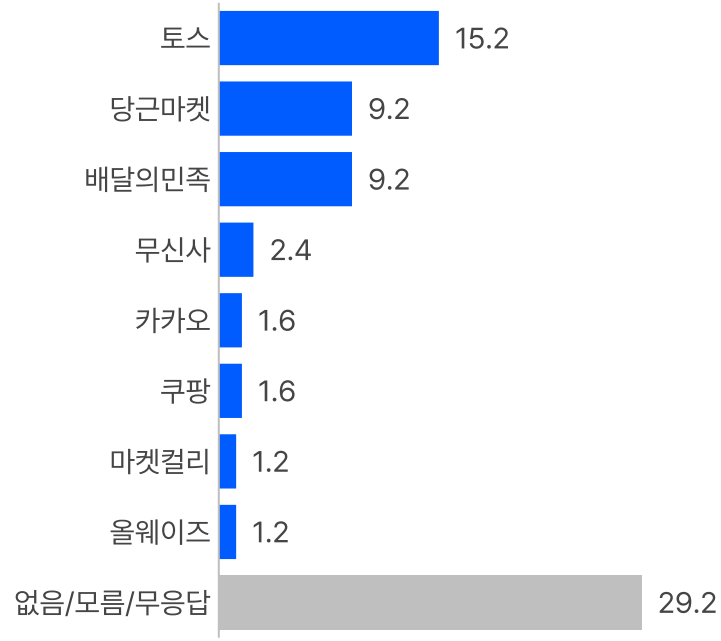
국내 스타트업 인식

국내 스타트업 중, '토스'·'당근마켓'·'배달의민족'의 성장세가 빠르다고 생각하며 업무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음

스타트업 재직자의 13.6%가 토스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어 당근마켓(8.4%)·배달의민족(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역시 이들 세 개 기업이 주로 꼽혔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
* 1% 미만 응답 절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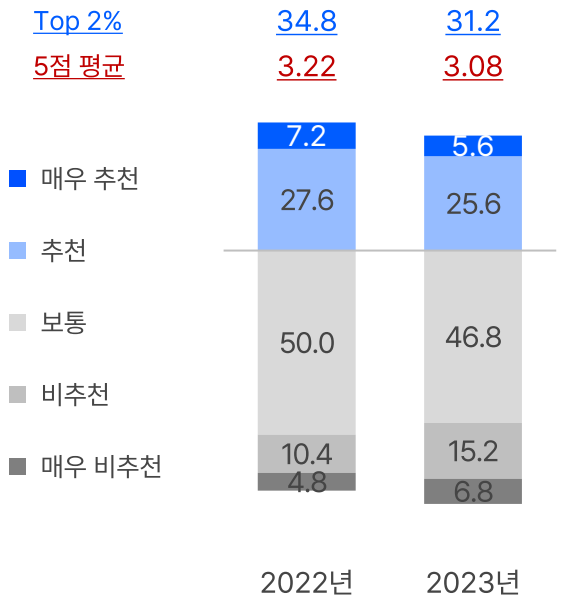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의향

스타트업 재직자의 31.2%만이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며, 이는 작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임

스타트업 재직자의 31.2%만이 스타트업 근무를 주변 친구/지인에게 추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작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입니다.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의향자의 44.9%가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증명된 시리즈 A~B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싶다고 답하였습니다.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의향



추천 스타트업 단계 (n=78)

해당 단계 스타트업 추천 이유

초기 스타트업 (엔젤 투자 단계)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초기인 만큼 보상도 크니까요"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A 투자 단계)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원하는 미래를 그려 나가는데 있어서 자율성과 최소한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 중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A~B 투자 단계)

"어느정도 성장가능성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의지와 동반 성장가능성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인식이 생기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

대규모 투자 유치 스타트업 (시리즈 C 이상 투자 단계)

"체계가 어느정도 잡혀 있는 구조라서"

"b단계 까지는 체계가 완벽히 잡혀 있지 않아 지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스타트업 근무 추천 응답자 (n=78), Unit : %]

Q.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에서의 근무 기회를 추천하시나요?

스타트업 근무 비추천 의향 이유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지 않는 주요 사유는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성' 및 '체계 미흡'

반면,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 의향이 보통인 이유로는 주로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체계적이지 못함' 등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불안정성	**52.3**
• 리스크/불안정성/불확실함	46.5
• 불안정한 재정상태	3.5
조직 문화/분위기	**41.9**
• 체계적이지 못함	20.9
• 업무량이 많음	7.0
• 경험/업무 배우기 어려움	4.7
• 업무분장이 모호함	4.7
• 힘들어서/많은 노력이 필요함	4.1
급여/복지	**14.0**
• 급여가 낮음	8.1
• 복지가 좋지 않음	3.5
• 불안정한 급여/급여를 못 받을 수 있음	3.5
기타	**11.6**
•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서	5.8

- "시스템의 체계화가 잘 안 돼있거나 상관없는 업무가 주어지기도 함"
- "경력이 공고한 사람이면 추천.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 주니어라면 비추천. 체계적 시스템 갖춘 스타트업이 많이 없어서 경력상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업무 적응이 쉽지 않다"
- "일부 스타트업, 유망한 스타트업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머지 80%는 불공정, 혁신 소멸, 등 빠르게 1~2년 안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 "회사의 성장에 따라 내가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과 성과가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만큼 피드백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안하고 안정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게 어렵다"
- "최근에 시장 상황이 어려워 대량 권고 사직을 보고 나서 추천이 어렵습니다"
- "수평직인 문화와 내가 업무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배가 적고 급여 또한 대기업보다 낮기 때문"

[Base: 스타트업 근무 추천 보통/비추천 응답자 (n=172), Unit : %]
* 3%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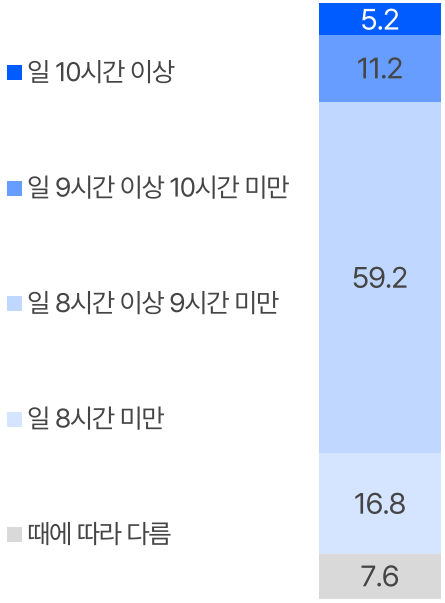
Q.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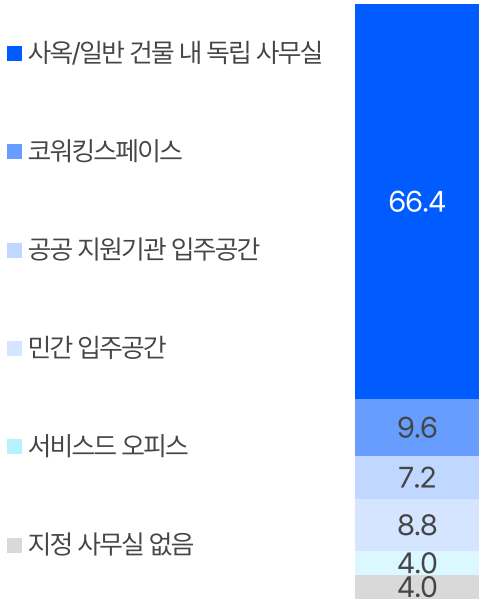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는 주로 일 8~9시간, 사옥/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에서 근무함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중 6명 가량은 일 8시간~9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으며, 66.4%가 사옥/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스타트업의 주요 복지/근무 환경으로는 자율 복장·식대/간식 지원·탄력근무·수평적 호칭 문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 환경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

Q. 재직중인 스타트업의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환경'은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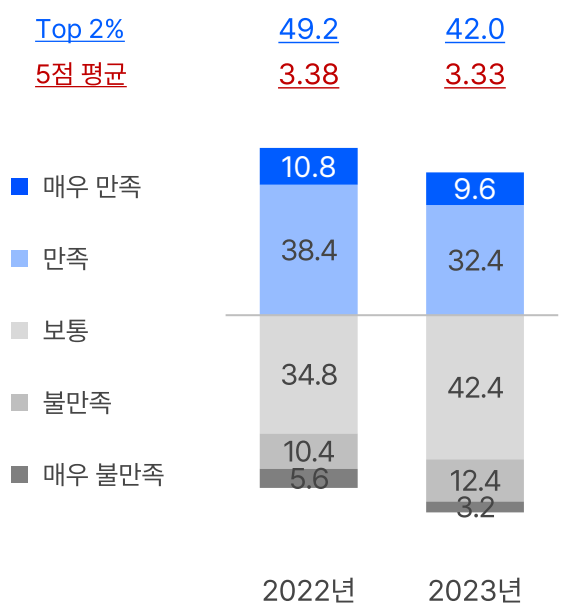
전반적 근무 만족도

전년 대비 스타트업 근무자 만족도는 감소하였고, 주로 '낮은 재정적 보상' 및 '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에 불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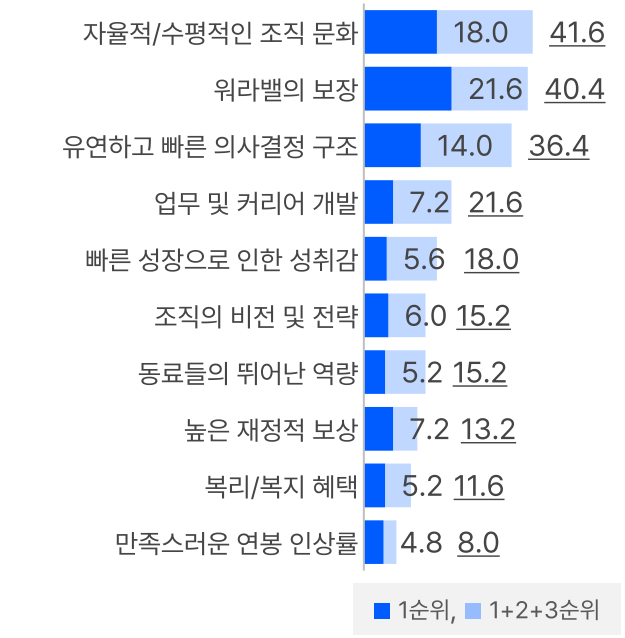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의 42.0%가 전반적 스타트업 생활에 만족하며, 이는 전년 대비 7.2%p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로 자율/수평적 조직 문화·워라밸 보장·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에 만족하나, 낮은 재정적 보상·불안정한 조직 비전/전략 측면은 주요 불만족 사유로 응답되었습니다.

전반적 근무 만족도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Unit : %]
* 1+2+3순위 기준 5% 미만 절삭

Q. 재직 중인 스타트업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 만족/불만족 요인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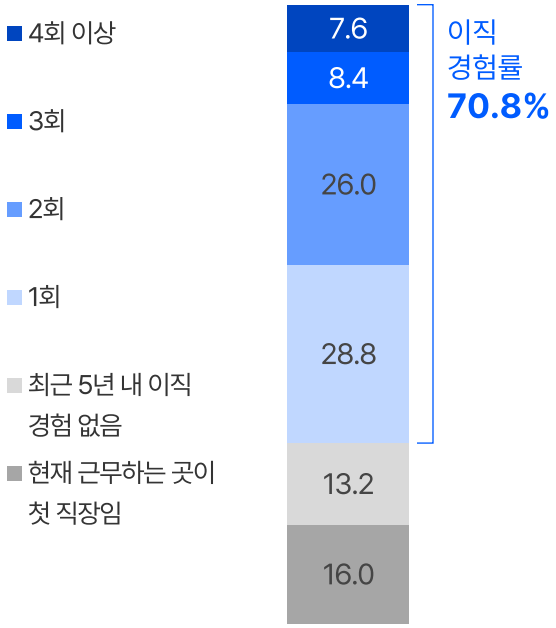
이직 관련 행태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국내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에서 이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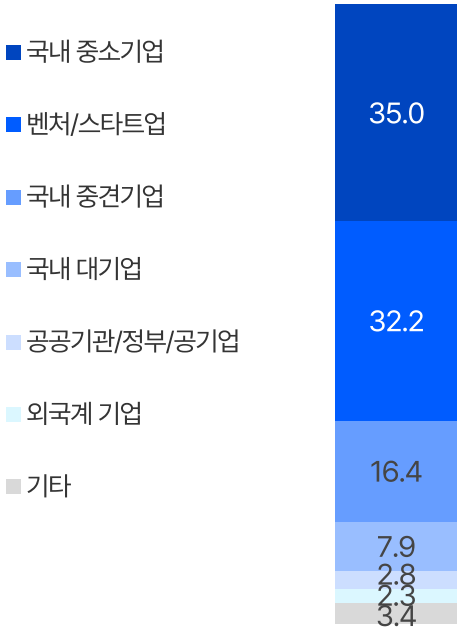
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재직자의 70.8%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국내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에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 이직 준비 시 어려운 점으로는 '기업의 조직 문화, 팀 내부 정보 탐색'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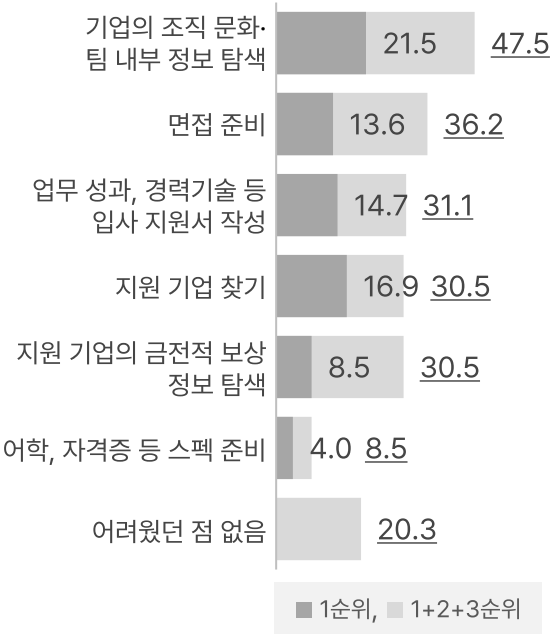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



전 직장 형태



스타트업 이직 준비 어려운 점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자 (n=177), Unit : %]

Q. 5년 내 이직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 현 직장 직전 근무하시던 곳은 어디인가요? / 재직하고 계신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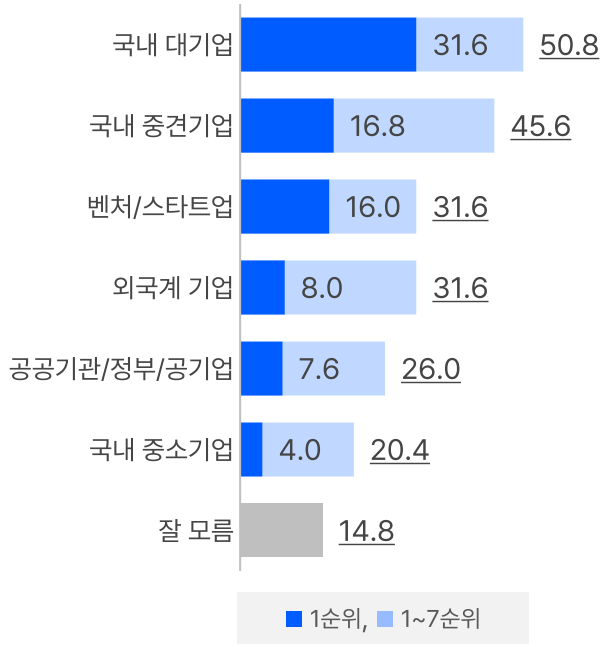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

향후 이직 시 높은 재정적 보상 및 복리/복지 혜택이 좋은 대기업을 가장 선호함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로 국내 대기업, 국내 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대기업은 높은 재정적 보상·복리/복지 혜택 및 인지도 측면에서, 벤처/스타트업은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빠른/유연한 의사결정 구조·조직 문화 측면에서 선호합니다.

향후 이직 희망 조직 형태



1순위 조직 형태 이직 희망 이유

	전체	이직 희망 조직 형태 (1순위)			
		국내 대기업	국내 중견기업	벤처/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Base)	(213)	(79)	(42)	(40)	(20)
높은 재정적 보상을 기대	42.3	67.1	35.7	20.0	15.0
복리/복지 혜택이 좋을 것 같아서	41.8	59.5	38.1	7.5	45.0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해서	29.6	38.0	26.2	25.0	45.0
워라밸이 보장될 것 같아서	24.4	11.4	28.6	22.5	45.0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률을 기대	22.1	22.8	35.7	2.5	35.0
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기대	21.6	5.1	28.6	57.5	10.0
동료들의 역량이 뛰어날 것 같아서	14.6	15.2	11.9	25.0	5.0
기업/기관 인지도가 높아서	13.1	24.1	7.1	0.0	10.0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빠를 것 같아서	11.7	1.3	7.1	42.5	0.0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어서	11.7	5.1	4.8	30.0	25.0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이 마음에 들어서	11.7	10.1	14.3	12.5	10.0
공정/합리적인 업무/성과 평가를 기대	10.3	3.8	16.7	12.5	20.0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역할을 잘 수행	6.1	2.5	9.5	5.0	0.0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이직 희망 조직 응답자 (n=213), Unit :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이직 희망 이유: 1+2+3순위 기준

Q. 향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으신가요? / 해당 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향후 스타트업 이직 희망 형태

주로 소프트웨어/솔루션·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희망함

벤처/스타트업 이직 고려자의 39.2%가 시리즈 A~B 단계의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선호하며,
주로 소프트웨어/솔루션·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희망합니다.

이직 희망 스타트업 단계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이유

• 성장/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15.2
• 안정적이라서	15.2
• 전문/자신 있는 분야라서	10.1
• 관심 분야라서	7.6
• 경험이 있는 분야라서	7.6
• 미래/앞으로 유망한 분야라서	6.3
•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 곳이라서	6.3
• 규모가 커서	6.3
• 재정적/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 가능	6.3
• 비전/전망이 좋아서	5.1
• 자유로울 것 같아서	5.1

[Base: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79), Unit : %]
*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10% 미만 응답 절삭 / 이직 희망 이유 5% 미만 응답 절삭

Q. 어떤 투자 유치 단계의 벤처/스타트업으로 이직하고 싶으신가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직하기를 희망하시나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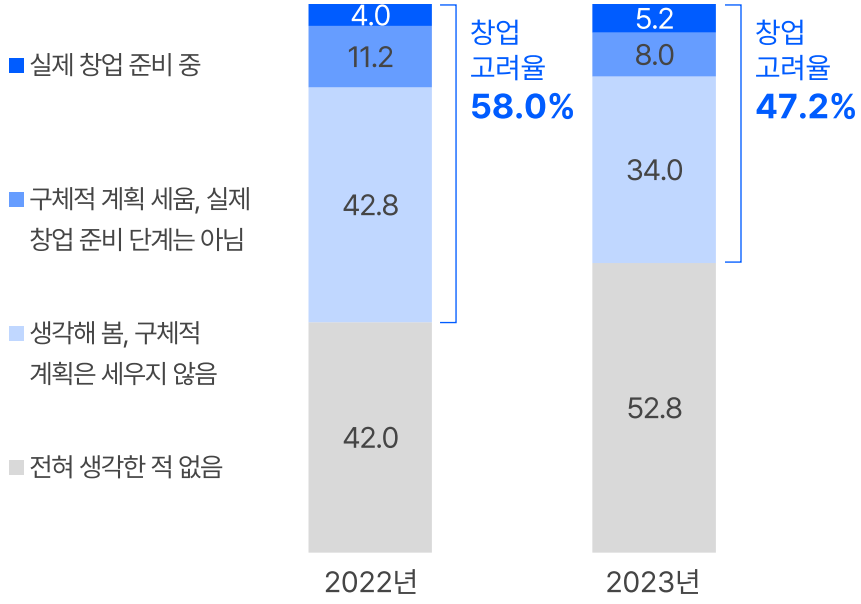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스타트업 재직자의 직접 창업 고려율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함

스타트업 재직자의 47.2%가 최근 1년 내 직접 창업을 생각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10.8%p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커머스/유통·소프트웨어/솔루션·콘텐츠/미디어·패션/뷰티 분야 창업 고려율이 타 분야 대비 높은 편입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창업 고려자 (n=129),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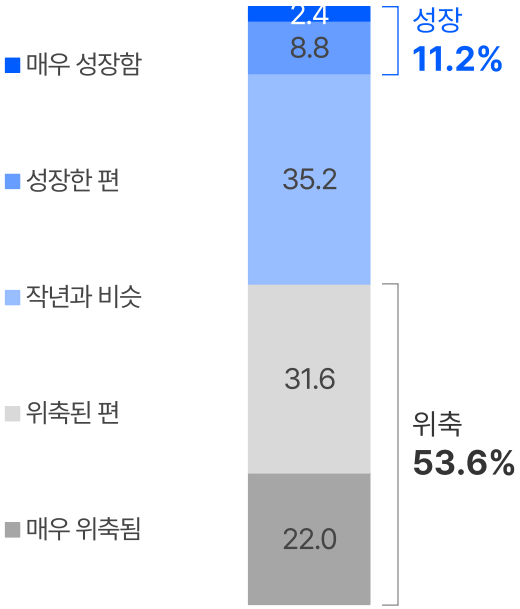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스타트업 재직자의 53.6%가 작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나, 지속 근무 및 창업 의향 영향은 크지 않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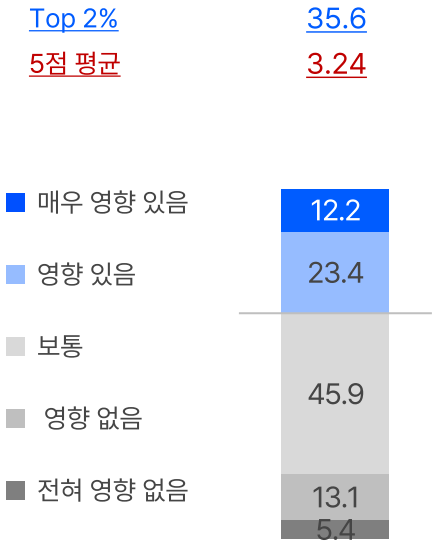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의 과반 이상인 53.6%가 작년 대비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작년 대비 비슷/위축하다고 느끼는 사람 10명 중 3~4명만이 지속 근무 및 창업 의향에 영향을 받아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2022년 대비 스타트업 투자 시장 인식



지속 근무 영향 정도



창업 의향 영향 정도

[Base: 스타트업 재직자 (n=250) /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비슷 응답자 (n=222) / 창업 고려자 중 투자자 시장 위축/비슷 응답자 (n=109), Unit : %/5점 평균]

Q. 2022년과 비교해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지속해서 근무하시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이 귀하의 창업 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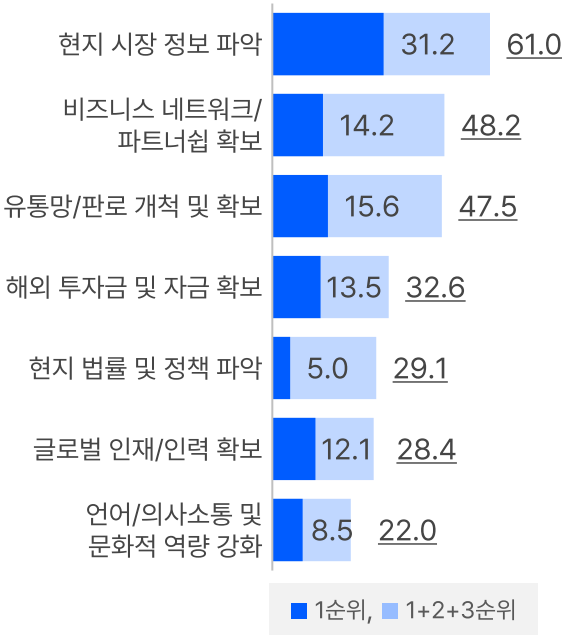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인식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의 26.6%는 글로벌/국제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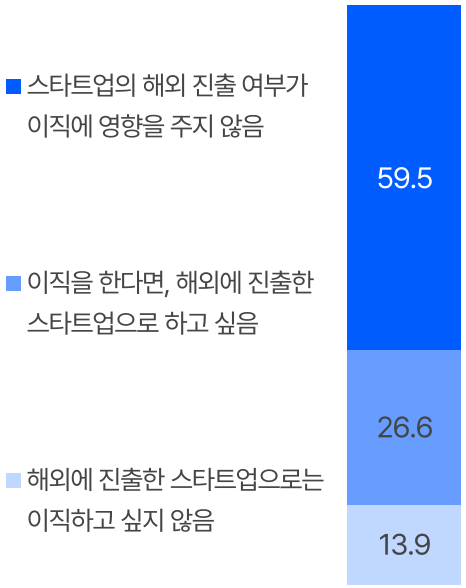
스타트업 재직자는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 시장 정보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재직자의 26.6%가 해외에 진출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선호하며, 글로벌/국제화 역량 향상을 주로 기대합니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 시 중요 준비 요소 인식



스타트업 이직 고려 시 해외 진출 여부 영향



해외 진출 스타트업 이직 희망 이유

- 글로벌/국제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76.2
-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서 38.1
- 조직의 성장으로 성취감이 있을 것 같아서 38.1
- 높은 재정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3.3
-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이 마음에 들어서 19.0
- 기업의 인지도가 높을 것 같아서 19.0
- 워라밸이 보장될 것 같아서 14.3
- 동료들의 역량이 뛰어날 것 같아서 14.3

Small Base (n<30),[Base: 재직직장 해외시장 진출 고려+경험자 (n=141) /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79) / 해외 진출 스타트업 이직 선호자 (n=21), Unit : %]

* 이직 희망 이유 10%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 재직자로서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스타트업 이직 고려 시 해외 진출여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3. 대기업 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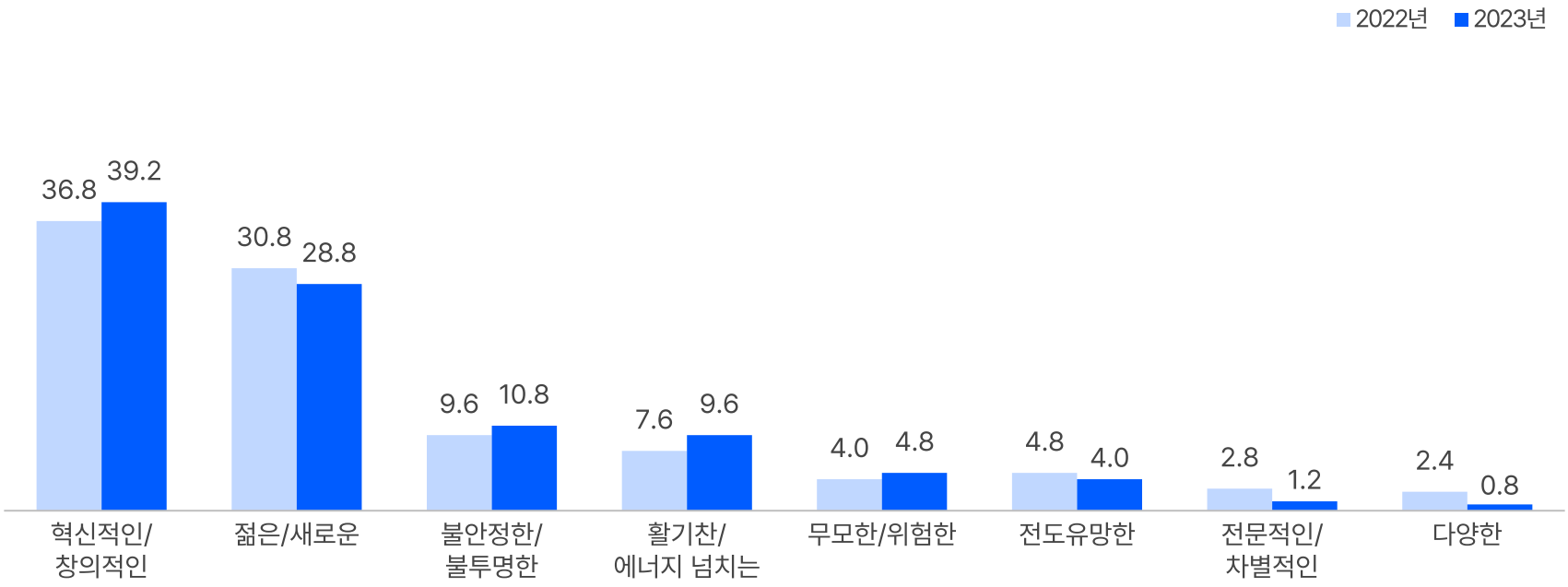
규모 총 250명

대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국내 대기업 재직자

스타트업 이미지

대기업 재직자에게 스타트업은 '혁신적인/창의적인'·'젊은/새로운' 이미지

대기업 직장인은 스타트업에 대해 주로 '혁신적인/창의적인'·'젊은/새로운'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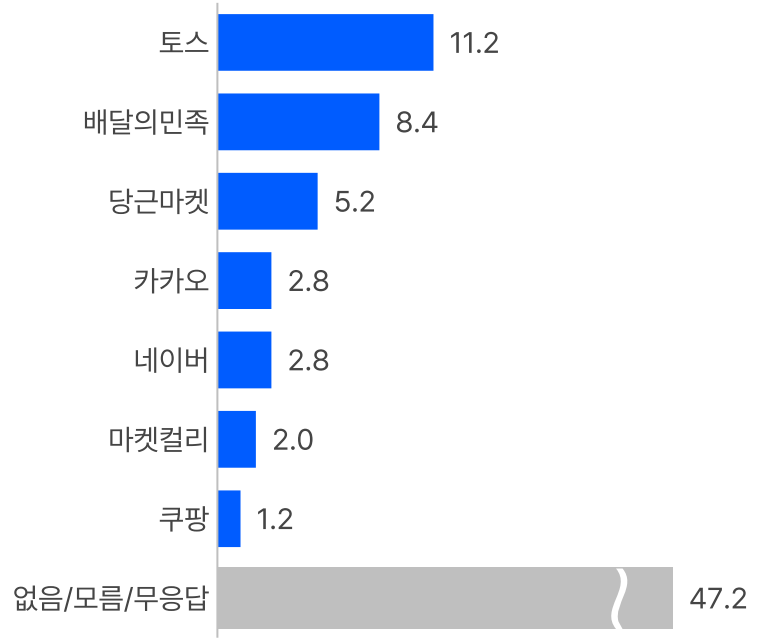
국내 스타트업 인식

대기업 재직자는 빠른 성장/관심 스타트업으로 '토스'·'배달의민족'·'당근마켓'을 주로 응답함

대기업 재직자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및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은 모두 토스·배달의민족·당근마켓이 Top 3를 차지하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
* 1%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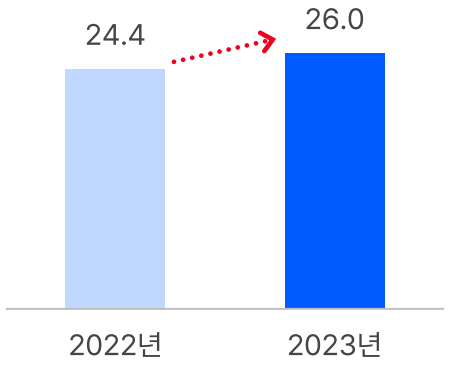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스타트업 정보탐색 경험 및 탐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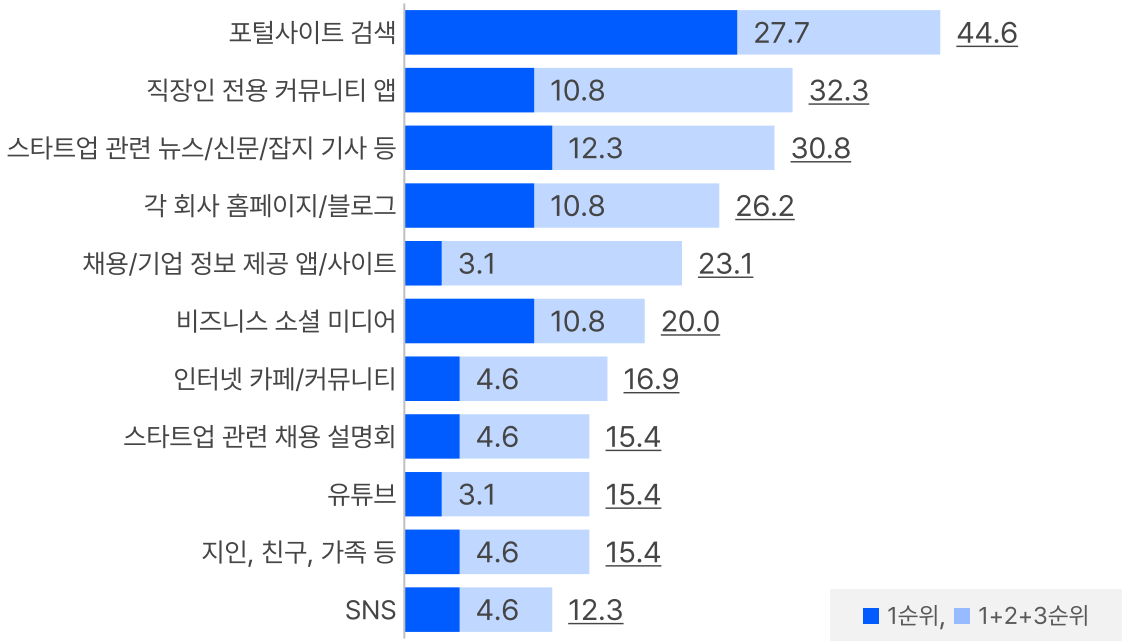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 4명 중 1명은 평소 포털사이트·직장인 전용 커뮤니티 앱·뉴스/기사 등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음

대기업 재직자의 26.0%는 평소 스타트업 관련 정보(스타트업 뉴스·시장 현황·취업/이직 정보 등)를 찾아본 경험이 있으며, 이는 전년과 유사/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로 포털사이트·직장인 전용 커뮤니티 앱(블라인드 등)·스타트업 관련 뉴스/신문/기사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합니다.

평소 스타트업 정보탐색 경험



스타트업 관련 정보 탐색 경로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스타트업 정보 탐색자 (n=65), Unit : %]
* 1+2+3순위 기준 10% 미만 절삭

Q. 평소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찾아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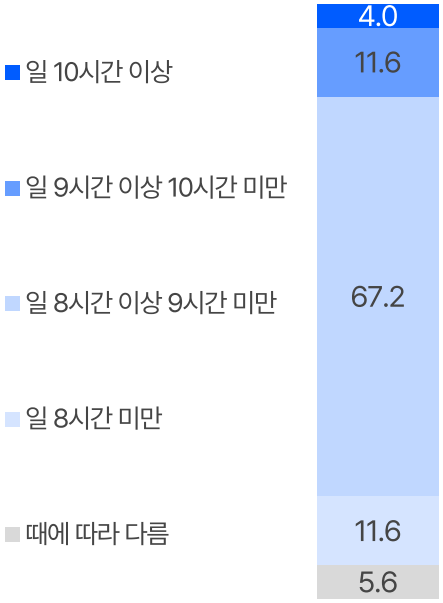
근무 환경

대기업 재직자는 주로 사옥/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에서, 일 8~9시간 근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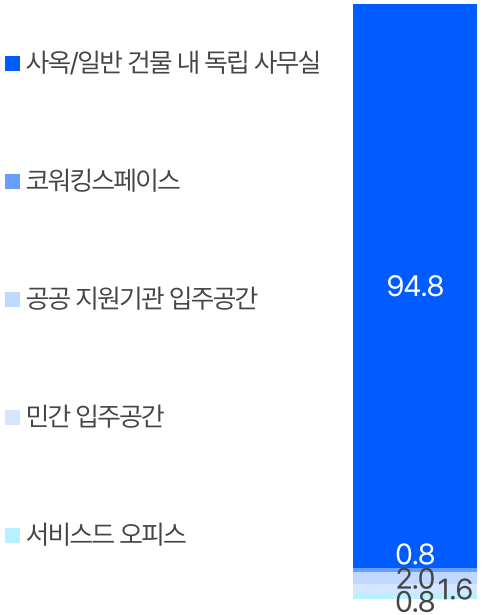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67.2%는 일 8시간~9시간 미만 근무하며, 대부분 사옥/일반 건물 내 독립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누리고 있는 복지/근무 환경으로 자율 복장·복지 비용 지원·사내 식당·자녀 교육비 지원·식대/간식 지원·탄력 근무 환경/복지 등이 꼽힙니다.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 환경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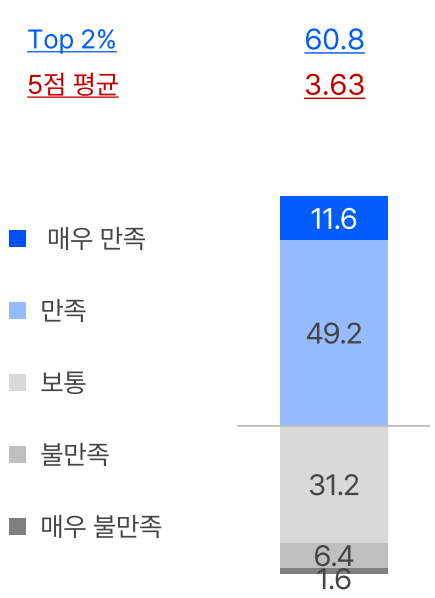
Q. 재직중인 대기업의 '평균 근무시간, 사무실 형태, 복지/근무환경'은 어떠한가요?

전반적 근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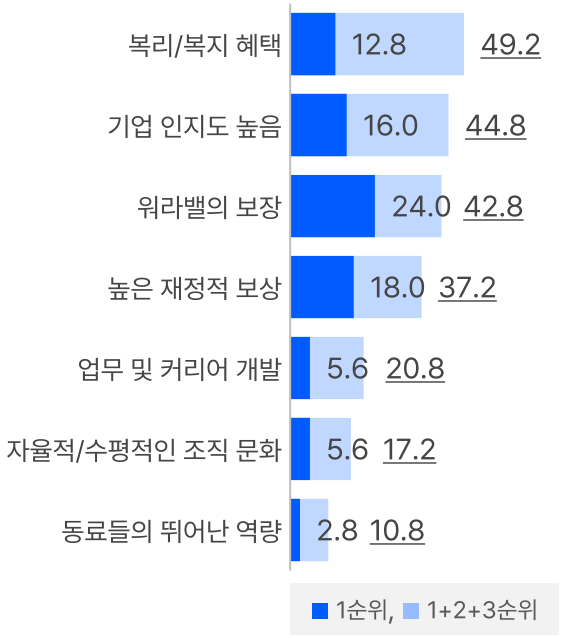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 10명 중 6명은 '복리/복지 혜택'·'높은 인지도'·'워라밸 보장'·'높은 재정적 보상' 측면 등에서 만족함

대기업 재직자의 60.8%가 대기업에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복리/복지 혜택·높은 기업 인지도·보장된 워라밸·높은 재정적 보상에 만족합니다.
반면, 불만족 요인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인상률·유연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낮은 재정적 보상 등이 주로 언급됩니다.

전반적 근무 만족도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Unit : %]
*1+2+3순위 기준 10% 미만 응답 절삭

Q. 재직중인 대기업에서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 만족/불만족 요인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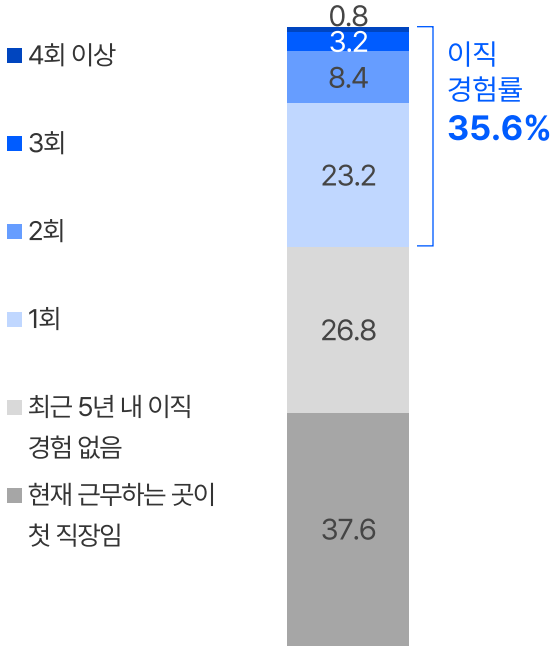
이직 관련 행태

3명 중 1명은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이 있으며, 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서 이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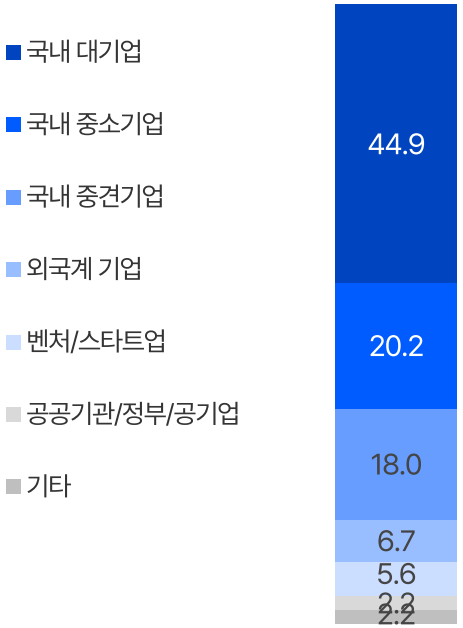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35.6%가 최근 5년 내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서 이직하였습니다.

대기업 이직 시 어려운 점으로는 '면접 준비'·'기업 조직문화/내부 정보 탐색'·'입사 지원서 작성' 측면이 주로 응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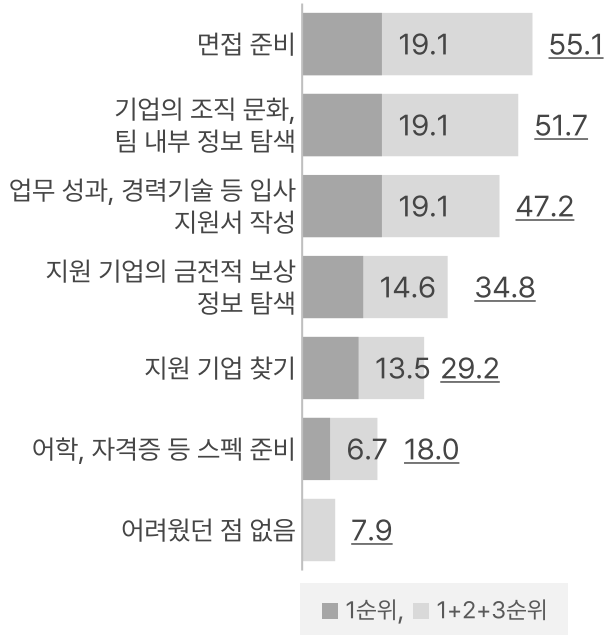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



전 직장 형태



대기업 이직 준비 어려운 점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최근 5년 내 이직 경험자 (n=89), Unit : %]

Q. 5년 내 이직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 현 직장 직전 근무하시던 곳은 어디인가요? / 재직하고 계신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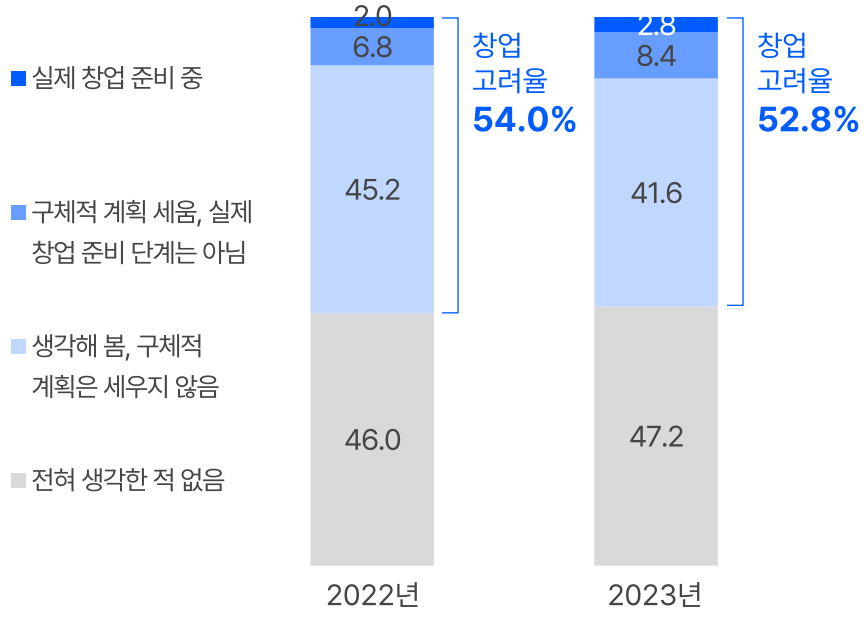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대기업 재직자의 52.8%는 최근 1년 내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소폭 감소한 수치임

대기업 재직자 중 52.8%가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해 본 적 있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소폭 감소한 수치로 확인됩니다.

이커머스/유통·농식품·교육·여행/레저 분야 창업 고려 비율이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창업 고려자 (n=140),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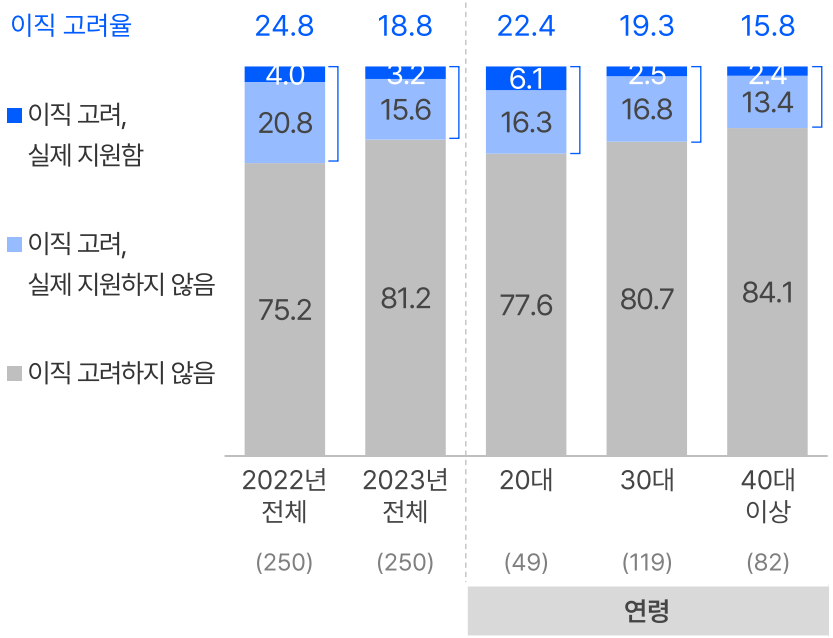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 고려 여부

대기업 직장인의 스타트업 이직 고려율은 18.8%로 작년 대비 6.0%p 감소함

대기업 재직자의 18.8%가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 고려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한 경우, 주로 '높은 재정적 보상' 및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등을 기대하였습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이직 고려 여부



스타트업 이직 고려 이유

[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47), Unit : %]
* 이직 고려 이유 10% 미만 응답 절삭

Q. 지난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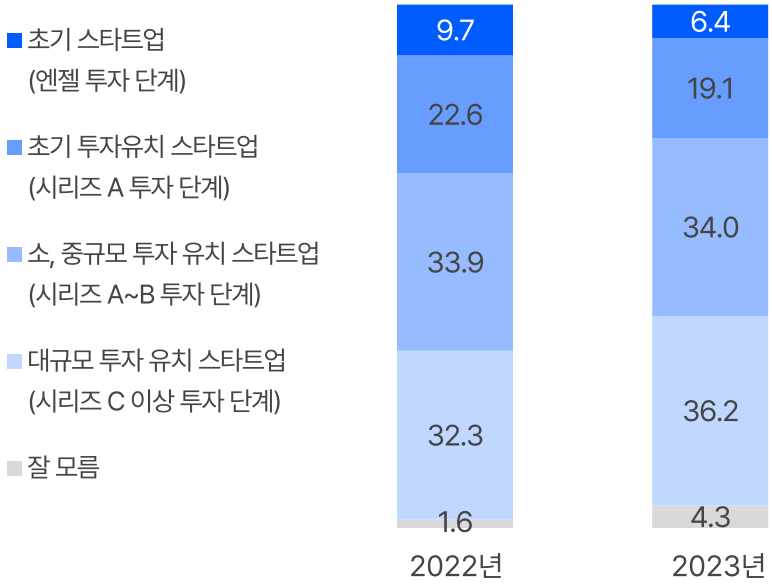
이직 고려 스타트업 단계 및 희망 분야

이직 시 주로 시리즈 A~B 이상 단계를 고려하며, 금융/핀테크/블록체인·딥테크·소프트웨어/솔루션 분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대기업 재직자 10명 중 7명은 시리즈 A~B 투자 단계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이직 시, 금융/핀테크·블록체인·딥테크·소프트웨어/솔루션 분야 선호도가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직 고려 스타트업 단계



이직 희망 스타트업 분야

[Base: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47), Unit : %]

Q.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셨나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직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스타트업 이직 비고려 이유

대기업 직장인이 스타트업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워라밸 비보장·낮은 재정적 보상에 대한 우려

대기업 재직자가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조직 비전/전략 불안정'·'워라밸 비보장'·'낮은 재정적 보상' 측면이 응답되었습니다.

[Base: 스타트업 이직 비고려자 (n=203), Unit : %]
*10%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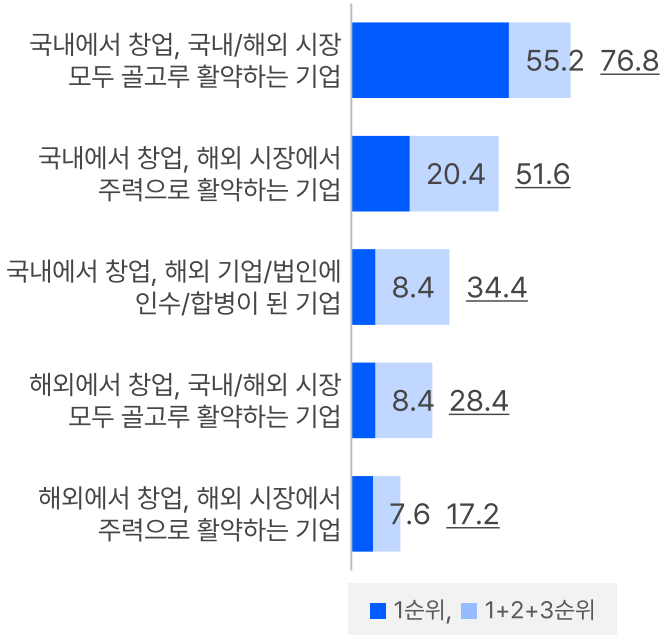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인식

스타트업 이직 고려 대기업 직장인 4명 중 1명은 해외 진출 스타트업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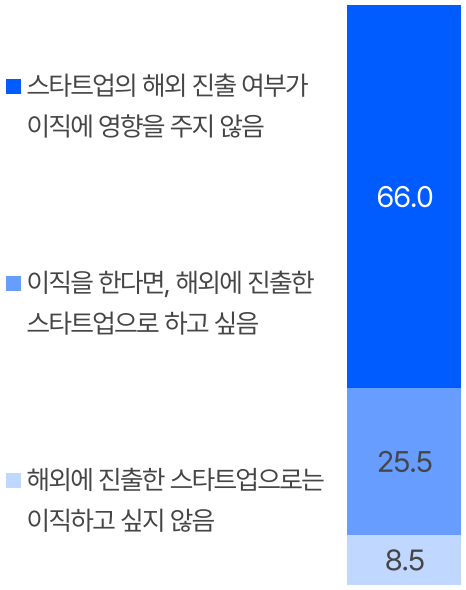
대기업 직장인의 55.2%는 '국냉에서 창업, 국내/해외 시장 모두 골고루 활약하는 기업'을 "해외 시장에 진출한 스타트업"에 가장 가깝다고 인식함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의 25.5%는 해외 진출한 스타트업을 선호하며, 글로벌/국제화 역량 성장·복리/복지 혜택을 주로 기대함

해외 진출 스타트업 인식



스타트업 이직 고려 시 해외 진출 여부 영향



해외 진출 스타트업 이직 희망 이유

• 글로벌/국제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58.3
• 복리/복지 혜택이 좋을 것 같아서	41.7
• 높은 재정적 보상을 기대	25.0
• 워라밸이 보장될 것 같아서	25.0
•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서	25.0
• 공정/합리적인 업무/성과 평가를 기대	25.0
•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이 마음에 들어서	25.0
•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률을 기대	16.7
•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16.7
• 기업의 인지도가 높을 것 같아서	16.7

Small Base (n<30),[Base: 대기업 재직자 (n=250) / 스타트업 이직 고려자 (n=47) / 해외 진출 스타트업 이직 선호자 (n=12), Unit : %]
* 이직 희망 이유 10% 미만 응답 절삭

Q. "해외 시장에 진출한 스타트업"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스타트업 이직 고려 시 해외 진출여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Part.3

조사 결과 상세

1. 창업자
2. 스타트업 재직자
3. 대기업 재직자
4. 취업준비생

4. 취업준비생

규모 총 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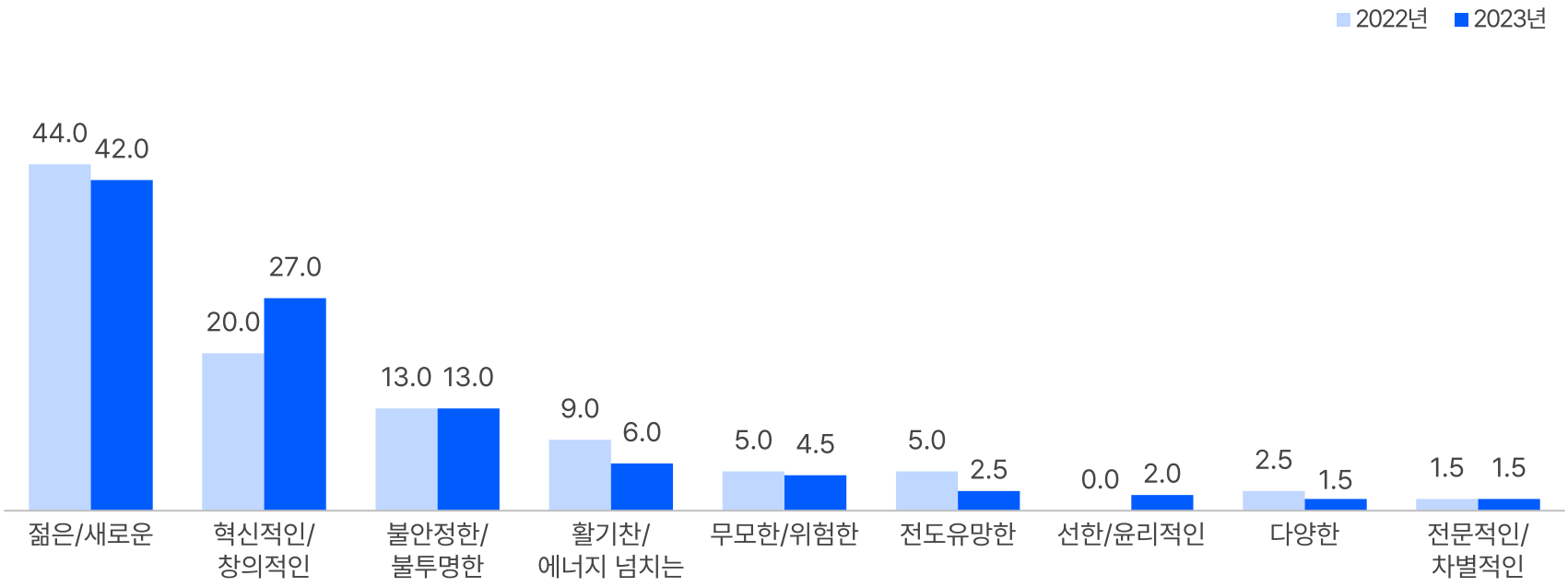
대상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스타트업 이미지

취업준비생에게 스타트업은 '젊은/새로운' 이미지이며, 전년 대비 '혁신적인/창의적인' 이미지 증가함

취업준비생의 42.0%가 스타트업에 대해 '젊은/새로운'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어, '혁신적인/창의적인'이미지가 27.0%로 작년 대비 7%p 증가하였습니다.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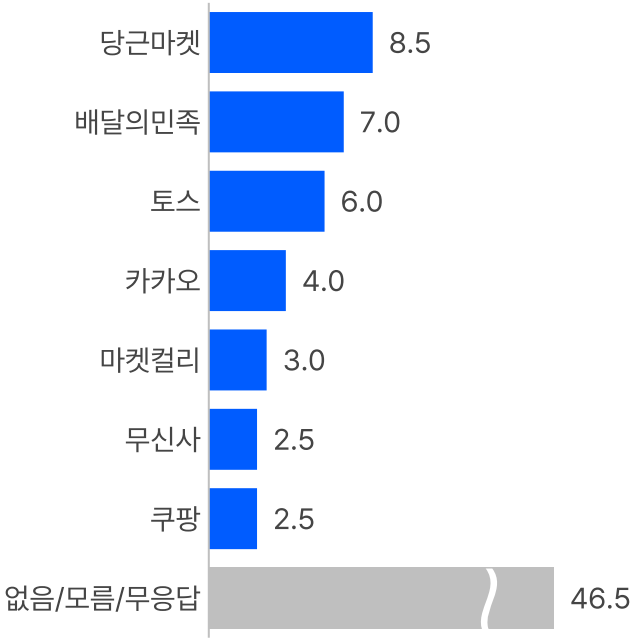
Q.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국내 스타트업 인식

취업준비생에게 빠르게 성장한다고 인식되는 스타트업은 '당근마켓'·'배달의민족'·'토스'

취업준비생 10명 중 4~6명은 빠른 성장/관심 국내 스타트업에 대해 무응답(모름/없음)한 가운데,
당근마켓·배달의민족·토스가 타 스타트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국내 스타트업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 1% 미만 응답 절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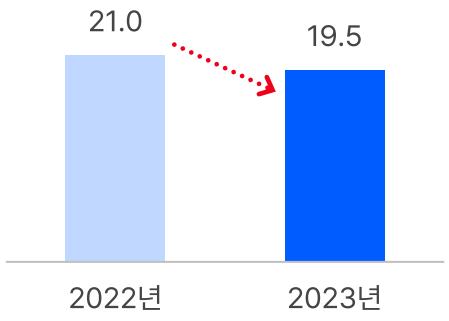
스타트업 정보탐색 경험 및 탐색 경로

취업준비생 5명 중 1명은 평소 스타트업 정보를 탐색하며, 주로 채용/기업정보 앱/사이트·포털 사이트·유튜브를 통해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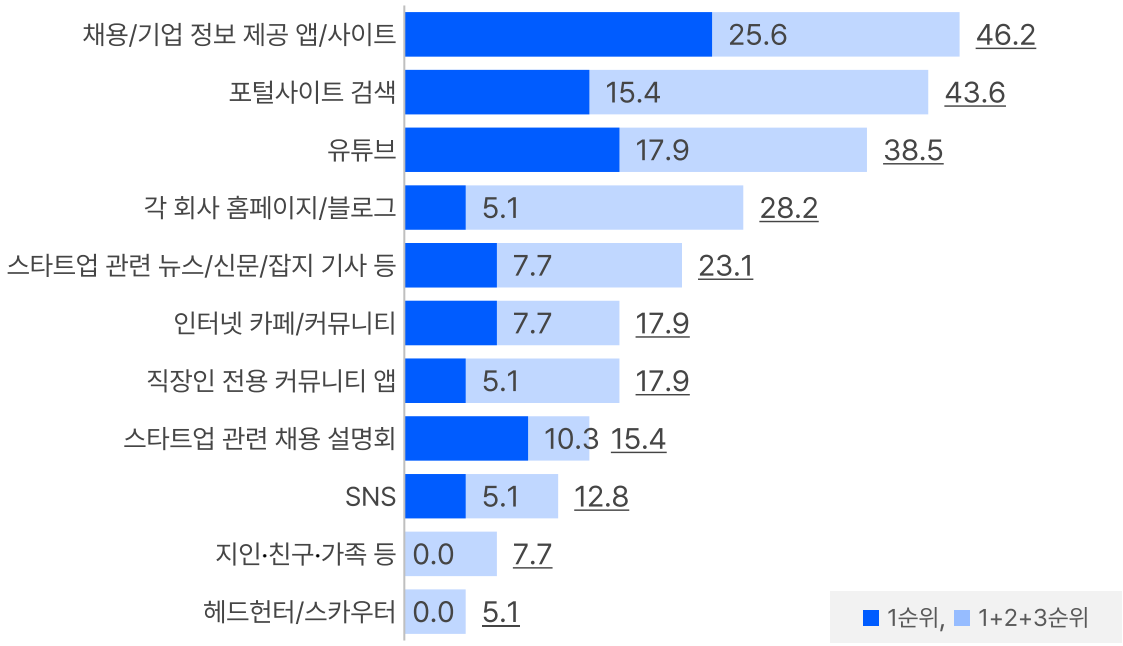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의 19.5%가 평소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유사/소폭 감소한 수준입니다.

주로 채용/기업 정보 제공 앱/사이트·포털 사이트 검색·유튜브를 통해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평소 스타트업 정보탐색 경험



스타트업 관련 정보 탐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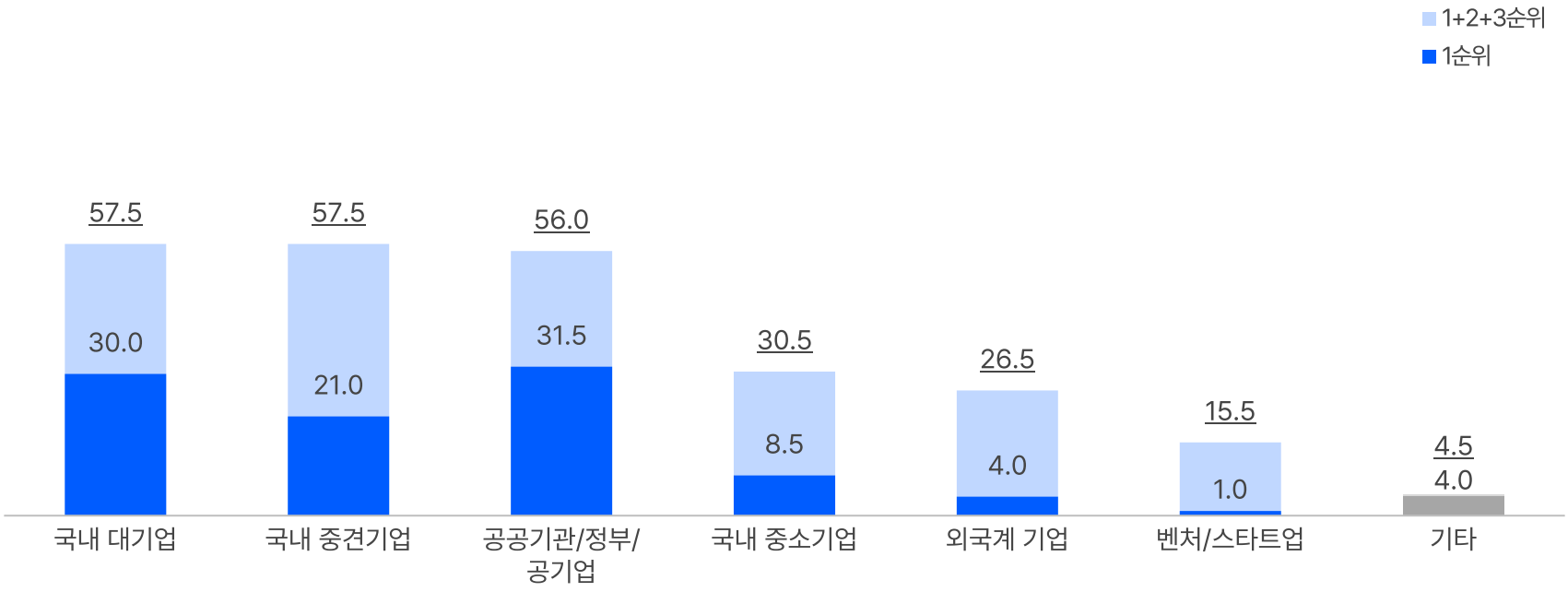
[Base: 취업준비생 (n=200) / 스타트업 정보 탐색자 (n=39), Unit : %]

Q. 평소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찾아보시나요?

취업 희망 회사

취업준비생이 가장 희망하는 조직은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정부/공기업입니다.

취업준비생은 주로 국내 대기업·국내 중견기업·공공기관/정부/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며,
벤처/스타트업 회사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은 1%로 매우 적습니다. 3순위 내 기준으로도 15.5%에 불과합니다.



[Base: 취업준비생 (n=200), Unit : %]

Q. 취업하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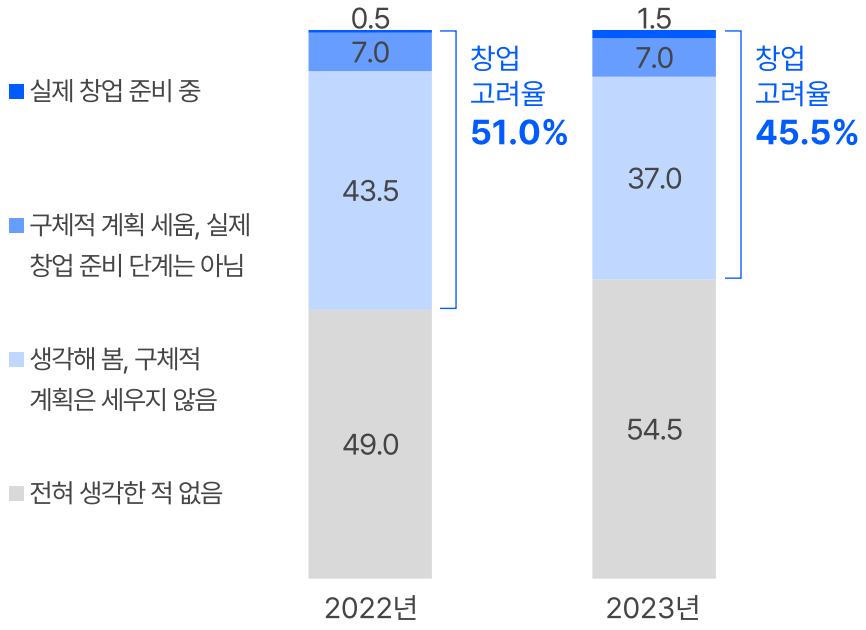
창업 고려 여부 및 업종

취업준비생의 45.5%가 1년 내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패션/뷰티·콘텐츠/미디어·농식품 업종 창업을 염두에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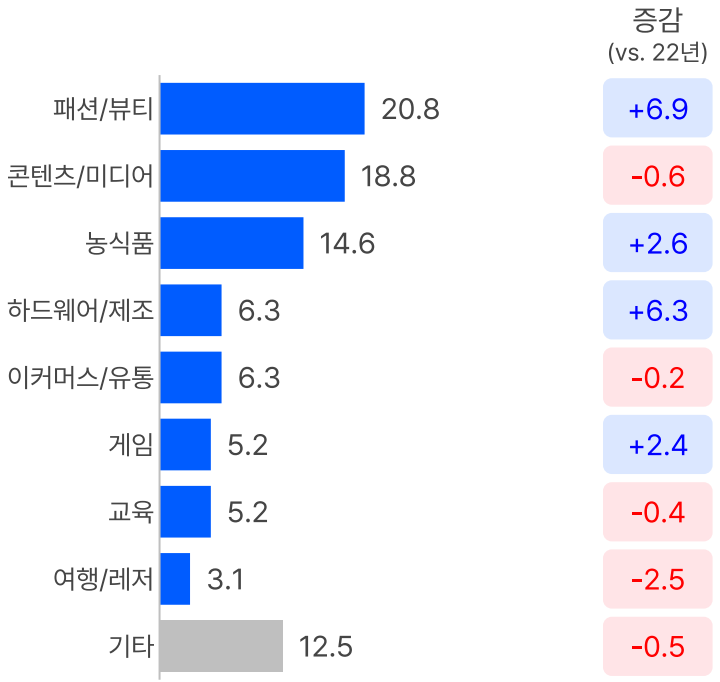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의 45.5%가 지난 1년 동안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5%p 감소한 수치입니다.

창업을 고려한 경우, 패션/뷰티·콘텐츠/미디어·농식품 업종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특히 패션/뷰티 업종 고려율이 작년 대비 6.9%p 증가하였습니다.

창업 고려 여부



창업 고려 업종



[Base: 취업준비생 (n=200) / 창업 고려자 (n=96), Unit : %]
* 창업 고려 업종 3% 미만 응답 절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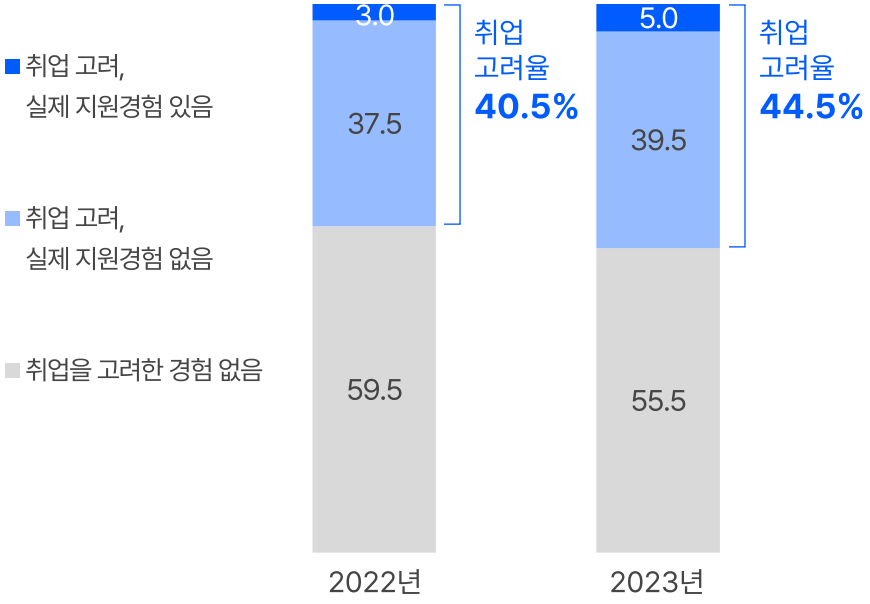
Q. 1년 동안 직접 창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창업을 고려하셨을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인가요?

최근 1년 스타트업 취업 고려 여부

취업준비생 44.5%가 1년 내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해 본 적 있음 (전년 대비 +4%p)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해 본 취업준비생은 44.5%이며, 작년 대비 4%p 증가하였습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스타트업은 '유연/빠른 의사결정 구조'·'업무 및 커리어 개발 가능'·'워라밸 보장'·'조직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측면이 주요 매력 요소입니다.
전년 대비 스타트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빠를 것 같아서'의 응답이 14%p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1년 스타트업 취업 고려 여부



스타트업 취업 고려 이유

[Base: 취업준비생 (n=200) /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 (n=89), Unit : %]

Q. 1년 동안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스타트업으로 취직을 고려하셨거나 실제로 지원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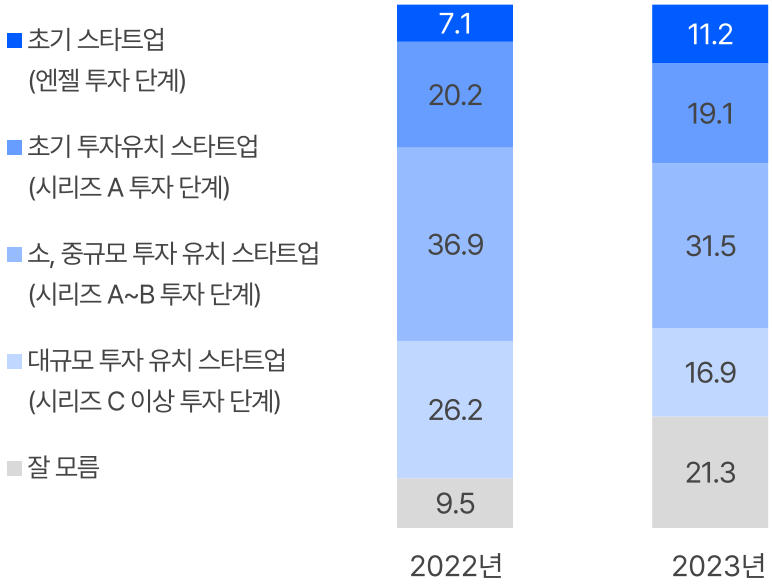
취업 고려 스타트업 단계 및 희망 분야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는 취업준비생의 31.5%는 시리즈 A~B 투자 단계 이상 스타트업 고려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하는 취업준비생의 31.5%는 시리즈 A~B 투자 단계의 기업을 선호합니다.

취업 희망 스타트업 분야로는 콘텐츠/미디어 분야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나 작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딥테크·농식품 업종으로의 취업 희망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취업 고려 스타트업 단계



취업 희망 스타트업 분야

[Base: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 (n=89), Unit : %]

Q. 어떤 단계의 스타트업으로 취직을 고려하셨나요? / 어느 분야의 스타트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스타트업 취업 비고려 이유

워라밸·불안정한 비전/전략·낮은 재정적 보상 등의 요소는 스타트업 취업 고려의 주요한 허들

취업준비생이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워라밸을 보장하지 않을 것 같아서'·'조직 비전/전략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재정적 보상이 낮을 것 같아서' 등이 주로 꼽힙니다. 특히, 전년 대비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응답이 9.8%p 증가하였습니다.

[Base: 스타트업 취업 비고려자 (n=111), Unit : %]
* 10% 미만 응답 절삭

Q. 스타트업으로의 취직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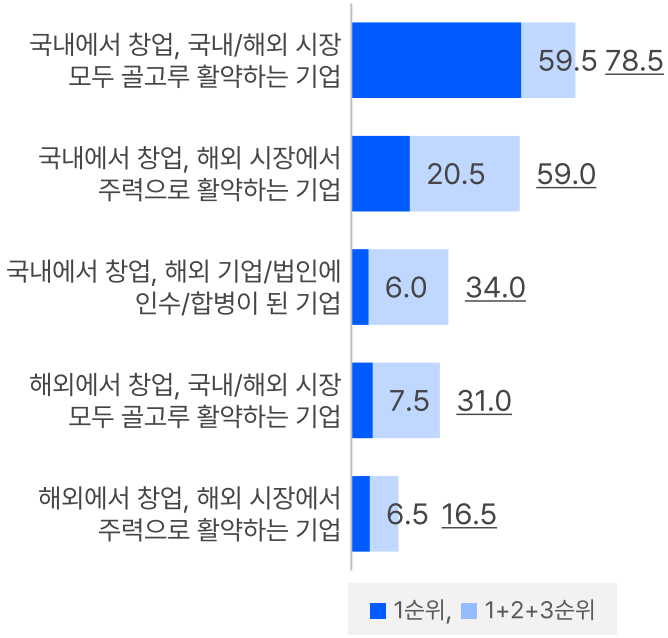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인식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는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해외 진출 여부에 영향 받지 않으며, 25.8%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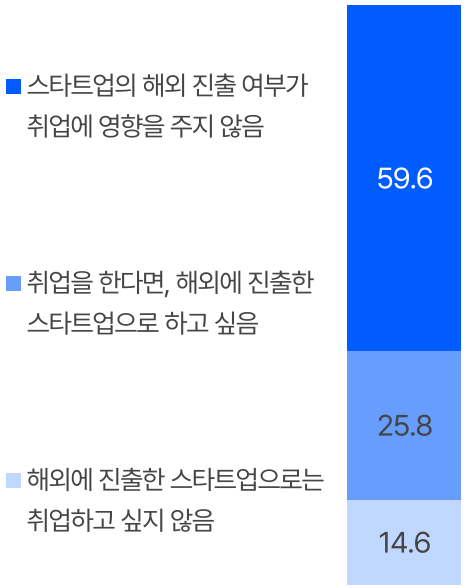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의 59.5%는 "해외 시장에 진출한 스타트업"이란 '국내에서 창업, 국내/해외 시장 모두 골고루 활약하는 기업'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고려하는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25.8%는 해외에 진출한 스타트업을 선호하였습니다.

해외 진출 스타트업 인식



스타트업 취업 고려 시 해외 진출 여부 영향



해외 진출 스타트업 취업 희망 이유

• 글로벌/국제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60.9
• 업무 및 커리어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서	47.8
• 높은 재정적 보상을 기대	43.5
• 만족스러운 연봉 인상률을 기대	30.4
• 기업의 인지도가 높을 것 같아서	21.7
• 복리/복지 혜택이 좋을 것 같아서	17.4
•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이 마음에 들어서	17.4
•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빠를 것 같아서	13.0

Small Base (n<30), [Base: 취업준비생 (n=200) / 스타트업 취업 고려자 (n=89) / 해외 진출 스타트업 취업 선호자 (n=23), Unit : %]
* 취업 희망 이유 10% 미만 응답 절삭

Q. "해외 시장에 진출한 스타트업"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스타트업 취업 고려 시 해외 진출여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 이유는 무엇인가요?

opensurvey

‘데이터의 새로운 미래’,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기업 오픈서베이

오픈서베이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부터 시대를 대표하는 유니콘
스타트업들까지 오픈서베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STARTUP ALLIANCE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생태계 구성원들을 연결하기 위해
2014년 출범한 민간비영리기관입니다.

창업가 및 생태계 구성원을 이어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국내외 생태계 소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
균형잡힌 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리서치 활동 등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opensurvey STARTUP ALLIANCE

Start-up Trend Report 2023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3

본 리포트는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사인 오픈서베이와
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크 스타트업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공동 발행합니다.

리포트 담당 업무 범위

오픈서베이: 프로젝트 설계,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프로젝트 설계, 최종 보고서 감수
리멤버: 창업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Pool 제공

※ 리포트에 수록된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에게 있습니다. Copyrightⓒ2023 Startupalliance · Opensurvey. All rights reserved.